

밑붙이 되고 불씨가 되자

2014년 가을



노들마라톤

노들장애인야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공장「노란들판」
장애인문화예술「판」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노들바람 이야기 구성

02 노들바람을 여는 창

03 딸과 아빠의 공동투쟁

05 광화문농성 2주년 투쟁보고서

10 광화문 농성 2년을 맞아 최옥란 열사를 기억하며

14 소통을 위한 수화반

16 풍성한 배움

17 나의 저상버스 첫 경험

18 [형님 한 말씀] 가을이 오는 길목에서

19 [노들아 안녕] 노들아학 가나

22 [노들아 안녕] 노들센터 현수

24 [나는 활동보조인입니다] 최영은 님

27 [뽀글뽀글 활보상담소] 조사와 점검이 계속된다

29 꽃동네 가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33 원지도 몰랐던 인권교육, 어느새 1년

36 활동가 대회를 다녀와서

38 전쟁터가 만난 바닷가

42 [자립생활을 알려주마] 다음에는 어디를 가보고 싶어요?

48 올라! 스페인!

55 우리, 이래서 바쁘다!

60 도움반에서 드리는 편지

63 온 몸으로 함께 울고 함께 기다리는 일

66 박경석 유연장

68 [오 그대는 아름다운 후원인] 서기현 님

71 고마운 후원인들



노들바람의 '노들'은 노란들판의 준말입니다. 농부의 노동이 녹아난 들panse에 넘실대는 결실들을 뜻하는 말로 노들인 모두 대지를 일구는 농부라 생각합니다. 시퍼런 '경쟁'의 도구로 차별과 억압의 들panse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과 연대'로 '인간 존엄성과 평등'이 넘쳐나는 노란들판을, 그 대안적 세계를 꿈꾸는 농부들 말입니다.

제 102호 2014 · 11

만든곳 노들장애인아학·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인자립공간「노란들판」

장애인문화예술「판」·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발행인 박경석 편집인 김유미 편집위원 김명학 김지에 박세영 배승현 정민구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140 유리빌딩 2층

전화 (02)766-9101~6 전송 (02)2179-9108

홈페이지 www.nodeul.or.kr

전자우편 nodlbaram@gmail.com

디자인·제작 (주)크리에이티브 다다(518-1571)

*「노들바람」은 크리에이티브 다다에서 디자인을 기부해 만들어진 책입니다.



2014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농성2주년
분홍배문학상 우수작 쌍차투쟁상 수상작

— 노들장애인아학 최유리 —

○●○
노들바람을 여는 창

‘한 잔 하다’가 이렇게 모두 띄어 쓰는 게 아니라 ‘한잔하다’ 이렇게 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간 노들바람에선 무수히 많은 이들이 한잔하였고, 저는 무수히 띄어 써왔는데 말입니다. 노들바람 102호에도 ‘한잔하다’가 여러 번 나옵니다. 어미가 다양하게 변용되어 등장하는데요.

노들바람에서 첫 인사를 전하는 노들야학의 가나는 “현장인문학이 끝나고 나서 얼마 뒤에 저는 은별, 준호 선생님과 그 두 사람을 따라 온 상용 씨를 따로 만나 술 한잔했어요.”

노들센터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로 ‘잠시’ 자리를 옮긴 현수는 “힘들 때 ‘밥 먹자’, ‘차 한잔하자’, ‘술 한잔하자’라고 말 한마디 건네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도 큰 힘이고 위로였습니다.”

노란들판의 해니는 짝꿍 시백과 “모스크바에서 말라카로 가는 비행기, 기내식으로 제공하는 와인을 한잔했다.”

난데없이 유언을 보내온 만인의 ‘교장쌤’ 경석은 “이제 유언장은 그만 쓰고, 노들장애인야학 교실에서 나팔 불고 있는 준호를 껴서 술 한잔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아 놓고 보니, 여기저기서 한잔하는 장면이 하나같이 정겹습니다. 친해지고 싶어서, 힘들어서, 기분이 좋아서, 지쳐서, 헛헛한 마음을 채우고 싶어서, 그렇게 저마다의 이유로 우리는 여기저기서 한잔하고 있나봅니다. 꼭 술이 아니라도 우리는 서로의 마음에 다가가기 위해 잔을 가운데 두고 마주보고 앉는 걸 테지요. 저랑은 커피 한잔해요.

지난 노들바람 101호엔 편집위원들과 노들바람 디자이너를 깜짝 놀라게 한 인쇄 사고가 있었는데요. 64쪽, 야학 창립멤버이자 현재는 특수교사인 김혜옥 동문이 쓴 ‘도움반에서 드리는 편지’에서 중요한 한 문단이 통째 ‘\$#%)*#) f, ‘” 이런 문자들로 가득 인쇄돼버렸습니다. 최종 확인에서도 파일에서도 문제가 없었기에, 더 당황스러웠고 또 미안했습니다. 하늘의 뜻이라 생각하고, 다시 씁니다. 잘 읽어주세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라니까요.

○●○
딸과 아버지의
공동투쟁

노들야학 **종훈, 수연**



자식을 계속 부모가 먹여 살리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있기 때문에 수급신청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저와 수연이뿐만 아니라 장애인 자녀로 둔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를 수급자로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안 그렇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자식하고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저도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

종훈의
이야기

노들장애인야학에 다니는 수연과 수연의 아버지 정종훈입니다. 제 딸 수연이가 조산으로 나왔어요. 낳으니까 몸무게가 0.7kg이였습니다. 인큐베이터에 넣어야 하는데... 35년 전이었지요. 인큐베이터 비용이 하루에 4만 원씩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돈이 없어서 아이를 못 넣었지요. 그때만 생각하면 많이 미안합니다.

현재 제 딸 이름으로 나오는 급여는 장애수당으로 한 달에 14만 원씩 나오는 것이 다입니다. 수연이 이름으로 수급 신청은 해본 적은 없어요. 어차피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다 큰

니다. 수연이가 수급자가 되어야 제가 눈을 감아도 좀 마음이 놓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종종 들곤 합니다.

수연이는 지금은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있지만 자립생활을 하는 꿈을 꿉니다. 지금처럼 맨날 같이 다니니 떨어져서 살 수 있느냐고 누군가는 묻지만, 사람은 언젠가는 헤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나도 수연이도 알고 있어요. 모든 부모들이 그럴 겁니다. 항상 부모들하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도 다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36.5도 + 365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농성 2주년 투쟁 보고서



저도 수급자가 되고 싶어요. 수급자가 되면 무엇이 좋을 것 같냐고요. 부모님하고 지금처럼 계속 같이 살고 있으면 부모님이 나로 인해 너무 많은 짐이 된다는 것을 저도 알기 때문입니다. 힘들어서 짜증도 내고 하니까요. 그게 너무 미안하고 저도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급자가 되는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틀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부양의무제가 폐지될 때까지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수연의 이야기

어머니, 아버지가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어머니는 오래 전에 위암 수술을 하였고 아버지는 최근에 갑상선암 수술을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위암 판정이 날 때도 힘이 들었지만 아버지 암 판정을 듣고 더욱 마음이 힘이 들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수술하고 관리를 잘 하고 계시니 마음이 조금 안정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짐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 싫습니다.

※이 글은 9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열린 '빈곤층이 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진짜 문제 증언 대회' 발표문입니다.





| | | | | |
|---------------------|--|------|---------------------------|--|
| 성명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집행부 한명희 | | 노들장애인야학 청솔1반(국어1반 교사) | |
| 학습활동일자 | 2012. 8. 21 ~ . . | 활동장소 | 5호선 광화문역사 지하2층 (7번 출구 방향) | |
| 동행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단체 / 농성장에 함께하고 마음 모아 주는 같은 뜻을 가진 사람 모두 | | | |
| 활동한 내용 | <p>광화문농성 2주년에 뭐할까 고민하던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함께해준 분들을 고민해봅니다.</p> <p>광화문농성장에 친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외롭지 않도록 함께 싸웠으면 좋겠다.</p> <p>- 8월 20일 그 첫 날은 부글부글 결심決心대회라는 이름으로 공동행동에 새롭게 소속한 단체들과 지금까지 함께해왔던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주년에 특별히 제1회 분홍배문학상을 개최하였습니다. 송경동 시인, 최진영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이형숙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를 모시고 출판작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뜨겁게 모집한 수상내역으로는 분홍배 트윗 부분으로 수필을 제외한 그림, 시, 사진 등등을 모집하여 쌍용자동차투쟁상/밀양에살다상/그대,강정상/용산참사진상규명상/두리반밥상/커피공방상/우창창공방상/이음책방상/까치수염출판사상/까페별꼴상 총 10개 부분으로 라인업을 완료하였으며, 수필 부분은 100만 원(투쟁공과금 50만 원 제외)으로 2개 부분으로 나누어 응모를 받았습니다. 치열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최우수상 수상작 없이 우수작 6편을 뽑아 부글부글 결심대회 당일 시상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하게 될지는 미정이지만, 조금 더 광화문농성장의 일상과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글들을 많이 모으고 싶다는 욕심이 듭니다.</p> <p>- 둘째 날, 8월 21일은 광화문농성장 2주년 맞이 비정상 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사회에서 규정하는 정상성에 질문합니다. 그리고 초대하였지만 오지 않은, 국내 정상들이 한 명도 참여하지 않은 비정상 회담이었습니다. 광화문농성장 야간사수 가장 많이 한 사람 중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문주가 2년 동안 농성의 경과를 보고하며 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마지막 엔딩 공연은 광화문농성 내내 풍악을 울리게 해준 야마가타 트윈스터의 #나쁘자나 공연이었습니다. 해치마당에서 진행하던 회담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노래를 들으며 잠시 밖으로 산책을 했지만 경찰들이 갑자기 어딘가에서 튀어나와 우리를 당황하게 하였지요. 비정상회담에 참여해주 친구들과 그리고 패널로 모셨던 모든 분들은 모두 농성장 어딘가에서 한 번쯤 마주쳤을 법한 사람들입니다. 가끔 그 예전이 그림기도 합니다. 회담의 마지막에 만찬이 빠질 수 없겠지요. 맘 편히 장사하고 싶어 싸워서 다시 장사를 시작하게 된 종로구청 부근 중국집 신신원에서 요리를 시켜 회담에 오신 분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신신원의 탕수육은 정말 고운 빛깔을 내고 있습니다.</p> | | | |
| <시간별, 활동과정별 자세히 기록> | | | | |

| | | | | |
|--------------------------------------|--|---|---------------------|---------|
| 활동한 내용 <시간별, 활동과정별 자세히 기록> | -금요일은 한 박자 쉬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2주년의 마지막은 토요일 광화문광장에서 함께 했던 집회와 문화제였습니다. 12시부터 12개가 넘는 부스들이 광화문광장을 메웁니다. 이날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소속된 지역 단체 동지들이 상경투쟁을 오는 날이기도 했지요. 이 마음들이 모두 모여 아침 10시부터 광화문광장에 동지를 든 세월호 동조단식에도 함께합니다. 2시부터는 광화문농성 2주년 맞이 투쟁결의대회 집회를 진행하였고 그 이후에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들이 잠시 이 공간에 머물러 집회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는 발걸음을 경찰은 또 막더군요.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막는 것은 그 자신이 가해자임을 선언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또 한 번 자신들이 이 참사의 가해자임을 선언했습니다. 문화제는 G 보이스의 합창무대로 시작합니다. 예쁜 장미꽃을 선물로 가져 오셨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함께 있지는 않아도 우리를 언제나 지지하고 있노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날, 홈리스밴드, 학생행진의 몸짓공연, 노래로 물들다, MR, 어깨꿈, 갤럭시 익스프레스까지 뜨거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12시부터 그리고 사전 준비로 오전 9시부터 우리와 함께해주었던 음향자유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 가난하고 혹은 외로울 싸움을 단단히 잘 버티게 해주어서 고맙다고 마음 전하려 했는데, 또 고마운 일만 더 많이 생긴 것은 아닌지 합니다. 고맙습니다. 8월의, 여름의 마지막 밤들은 그렇게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 | | |
| | 활동 후 알게 된 점 | 광화문 지하역사 2층 농성장에는 9개의 영정사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단단한 죽음들, 이 죽음에 억울한 나날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살아가겠습니다.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농성 2주년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나는 고마운 당신을 기다립니다. | | |
| 더 알고 싶은 점 | 언제까지 할 거나구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 | |
| 활동 후 소 감 | 가끔, 농성장에 앉아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이 공간은 언젠가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때 이 공간을 채워주었던 지나갔던 당신,은 무엇을 하고 어딘가에 있을까요. 지금처럼 일상을 함께 지키고 있을지도, 혹은 우리 모두 뿔뿔이 흩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들을 지키기 위한, 이제 2년이 넘는 기록들입니다. 지금도 나는 내 옆에 있는 당신이 나와 함께한 지난날들을 많이 그리워하길 바랍니다. | | | |
| 자기평가 | 투쟁성(30) | 연대성(40) | 정책성(30) | 점수(100) |
| | 상(30), 중(20), 하(10) | 상(40), 중(30), 하(20) | 상(30), 중(20), 하(10) | |

※ 활동하면서 찍은 사진, 모은 자료, 관련 자료는 보고서 뒷면에 붙입니다.

[별첨자료 1]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농성장 변천기 _ 지금 우리가 오기까지의 그 먼지들(맹)

| 광화문농성장 변천 연대기 | 농성장 풍경 | 설명 |
|---------------|---|---|
| 정말, 아무것도 없다. |  | 2012년 8월 21일 광화문 지하역사로 들어가기 위해, 우린 12시간을 싸웠고, 겨우 몸을 뉘 수 있는 돛자리만 들여왔습니다. |
| 공간, 의 시대 |  | 천막이 세워졌습니다. |
| 창고, 의 시대 |  | 아시바 (일본어사전あしば [定場] 중요도 별점 1개 3. (...하기 위한) 기반; 토대.) |
| 지금, 이 시대(1) |  | |

지금,
이 시대(2)



농성장 변천사에 큰 도움을 주었던 이들의 이야기**

< 로맨스조 >

1. 엄청나게 많은 계획과 결정들을 한두 시간 회의에 꼭 채워 해결해 나가면서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 공동행동 집행위원님들의 모습에 감탄사가 절로 났습니다.
2. <월간>농성과 생활(잡지 아님)이란 프로젝트로 광화문농성장의 생활기구와 농성'집'만들기(박경석 교장선생님 제안)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정은 딱 3일. 추운 겨울, 밤을 세워가며 함께 작업한 <길공방>의 구름 철민, <별꿀상화> 별꿀, <전장연> 이상용 님, <노들야학> 명희 씨, <전장연> 유진 씨, 뉴미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박경석 교장쌤 농성장에서 받은 세뱃돈 잊지 못할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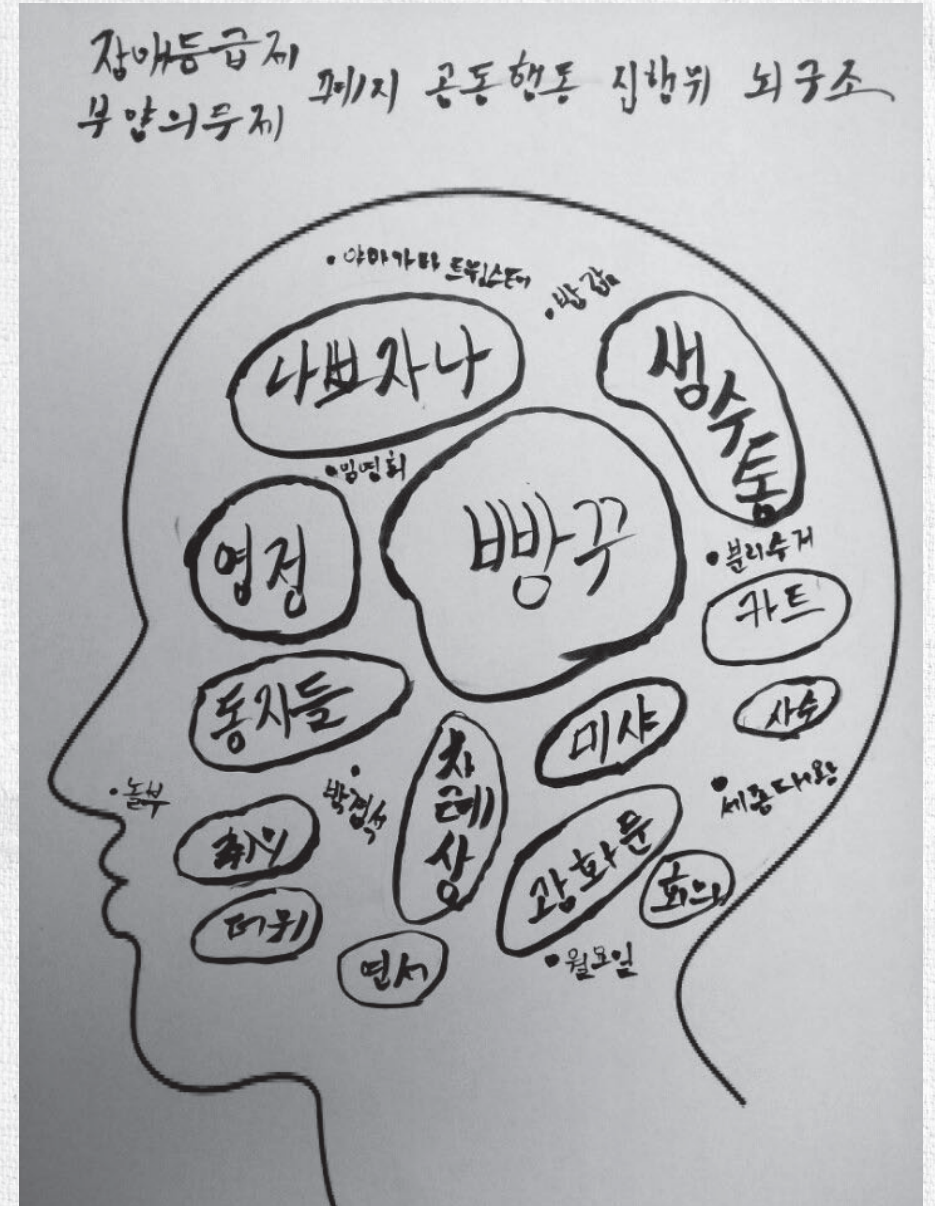
< 별꿀 >

어느새 2주년이라니요.
짧으면 짧을수록 좋았을 광화문 농성 기간을 어떻게 축하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서울. 한복판. 서늘한 광화문역 지하도. 그 한 칸에서 만들어진 많은 이야기들은 오롯이 남겠지요. 무심히 스쳐가던 사람들의 수많은 발자욱 소리, 이른 새벽녘 지하도 냄새, 잠시나마 걸음을 멈추어 서명을 한 후 공간을 휘 둘러보던 눈길, 플라스틱 도시락, 웃음소리 나던 끝없는 회의들, 영정 사진들, 비닐 벽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칼바람, 먼 길 달려와 농성장의 빈 자리를 실 틈 없이 채우는 사람들. 그 자국. 자국들.

그러니 그것들이 쌓여 모인 공간에 대한 축하라면.
먼저 같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둥근 공을 차 올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아! 축하드립니다.

[별첨자료 2]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농성장 뇌 구조(성철)



< 출처 : 광화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 "2년을 담다" 자료집 >

○○○ 광화문 농성 2년을 맞아 최옥란 열사를 기억하며

빈곤사회연대 **윤영**



‘사람이 법을 만드는데 이럴 수 있소’

2012년 여름, 거제 시청 앞에서 독극물을 들이킨 이 씨 할머니의 소식이 전해졌다. 할머니의 유서에는 ‘살아가기 힘들데 기초생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된 게 원망스럽다’, ‘법이 사람을 위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말이 쓰여 있었다.

도대체 무슨 법이 할머니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

일까.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였으나 사위의 소득 증가로 수급에서 떨어졌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부양의무자가 있을 때에는 부양의무자가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할머니는 사위에게 부양받을 수 없음을 수차례 읍소했지만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라는 완곡한 거절을 들었을 것이다. 수급에서 탈락한 뒤 혼자 사는 셋방 월세조차 밀렸던 할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이들은 한두 명이 아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긴 비극은 수없이 반복되어 왔다.

2011년 4월에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권을 받지 못하던 김 씨 할머니는 폐결핵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을 오가다 거리에서 객사했다. 같은 해 7월, 남해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던 70대 노인과 청주의 70대 노인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 탈락 통보를 받고 자녀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고민하다 투신했다. 2012년 2월엔 양산의 지체장애 남성도 자녀 소득으로 수급 탈락하자 집에 불을 내 자살했고, 9월엔 치매부인의 기초생활수급 탈락을 염려한 서울의 노인이 요양병원에서 투신했다. 11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권조차 없던 할머니와 손주는 촛불로 추위를 녹이다 화재로 사망했다. 2013년 9월, 신장투석 환자였던 부산의 한 아버지는 딸의 취업으로 인한 수급 탈락 통보를 받고 딸에게 병원비를 부담시킬 수 없어 자살했다.

이들은 모두 가족이 있었으나 가족에게 부양받지 못했거나, 부양받고 싶지 않아 했다. 매물찬 한국의 복지는 이들의 마지막 부탁을 거절했다. 이 씨 할머니는 아침 일찍 거제 시청에 도착했었다고 한다. 하루 종일 시청 앞마당을 빙빙 돌다 모든 직원이 퇴근한 뒤 해질녘이 되어서야 제초제를 들이켰다고 한다. 하루라는 긴 시간 동안 할머니의 손을 잡아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할머니의 죽음 이후 우리는 서울의 한복판, 광화문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등급으로 장애인의 복지를 제한하는 장애등급제, 가족의 책임으로 복지를

떠넘기는 부양의무제는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삶을 억압하는 ‘족쇄’임을 선언하고, 이 두 가지를 없애야만 복지가 바로 설 수 있다는 요구를 시작한 것이다. 청와대와 경복궁, 광화문으로부터 승례문으로 이어지는 서울의 동맥 세종로 한복판에 외면 받는 장애인, 빈민들의 작은 거처가 생겼다.

2년간 한결같이 광화문 광장 지하에 머무는 동안 다양한 일들이 광화문 역사 안에서는 일어났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로 고통받는 이들이 모여 이를 없애자고 시민들에게 호소했고, 나의 가족과 친구가 장애인이다, 기초생활수급자다 이야기하며 흔쾌히 서명에 응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가 왜 폐지되어야 하나요 묻고 두 시간에 걸친 진지한 토론을 나누는 회사원도 있었고, 오가는 출퇴근길 간식이나 음료수를 전달하고 종종 걸음으로 사라지는 이들도 있다. 우리의 요구를 자신이 해결하겠노라 찾아와 플래시 세례를 받고 떠난 정치인도 있었고, 우리를 내쫓으려고 안달하다가 정치인 앞에선 화색을 감추지 않던 광화문 역장의 얼굴도 보았다. 2년의 시간 동안 함께 투쟁하다가 화마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동지들이 있었고,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이들을 기억하며 슬퍼해야 하는 일이 잦았다. 가끔은 노래를 부르고 시를 읊기도 했고, 명절마다 함께 차례를 지내기도 했다. 명절 아침 홀로 거리를 지나는 외로운 사람들과 기꺼이 명절 밥상을 나누기도 했다. 그렇게 짙은 농도의 2년이 훌쩍 지났다.

광화문에서 2년간 농성을 하며 가장 많이 떠올린 얼굴은 나오는 생전 아무런 면식이 없는 ‘최옥란’이라는 한 사람이었다. 최옥란 열사는 장애인이고 기

초생활수급자였으며 여성이었다. 도시에 사는 빈민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전에는 청계천에서 작은 좌판을 여는 노점상이기도 했다. 2000년 12월, 명동성당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대로 만들어 달라'며 본인의 한 달 기초생활급여 28만 원을 국무총리에게 반납하고 농성을 했던 최옥란 열사는 고달픈 삶을 살았다. 그녀의 얼굴이 그토록 떠오른 이유는 광화문 농성장에 모여드는 우리가 바로 최옥란들이었기 때문이다.

시행된 지 1년 만에 제도 개정을 요구했던 최옥란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는 못했지만 가난한 이들의 삶을 날카롭게 고발했다. 장애인과 노점상, 빈민, 여성의 삶이 한 사람의 몸에 중첩되어 있을 때 생존은 그 자체로 너무나 버거운 것이다. 낮은 수준의 최저생계비가 옥죄는 일상,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없게 만드는 복잡하고 강경한 수급자 자격요건, 현실과는 동떨어진 수많은 행정 규칙 등 최옥란이 맞닥뜨린 높은 장벽은 10년이 지난 지금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생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사회에 나오고 투쟁했던 최옥란은 농성을 마친 다음 해 3월, 37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수없이 겪어야 했던 좌절이 그녀를 결국 집어삼킨 듯 했다. 2년간의 농성 동안 빼곡히 늘어선 영정사진들을 보며 최옥란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 죽음은 왜 이렇게 우리와 가까운가.

흔히 빈곤층을 '취약계층'이라고 한다. 광화문 농성장까지 오기 위해 잘 오지 않는 저상버스를 기다리고, 장애인 콜택시를 기다리고, 가난한 지갑을 털어 지하철을 타고, 광화문 근처 밥값이 너무 비싸 맛 있는 가게들을 옆에 두고도 삼각김밥으로 점심을

때워야 했던 우리는 확실히 취약했다. 광화문 농성장을 알리기 위한 유인물을 만들 때에도 얼마의 돈이 들지 수없이 계산해야 했고, 미안한 마음을 애써 숨기며 뻔뻔한 얼굴로 지인들에게 후원을 요청하고 티셔츠를 강매했다. 이런 정성이 모인 농성장이 성과 없이 끝나면 어떡하나, 불안함과 죄책감을 갖는 것마저 스스로의 몫이었다.

취약계층은 선택할 여지가 그리 많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거리의 턱 때문에 갈 수 없는 휠체어 타는 장애인,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도 돈이 없어 먹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몸이 아파 할 수 없는 환자와 노인을 비롯한 약자들이 취약계층이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는 취약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절망으로 떨어뜨리는 악법이다.

농성장에서 만났던 한 장애여성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아이가 성인이 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이혼 후 아이를 혼자 키우던 장애 남성은 헤어진 부인이 부양의무자라며 분개했다. 경기도에 사는 한 40대 여성은 엄마가 재혼을 했는데, 새아버지 재산 때문에 수급탈락 위기를 겪게 되었다며 새아버지는 부담감 때문에 자신을 피하고, 엄마는 '내가 죽어야 한다'며 목 놓아 울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농성에 들어가기 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한 장애남성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제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부모님은 평생 모아 마련한 집 한 채까지 팔아서 저를 부양해야 합니까? 저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가 가난해져야 합니까? 저는 어느 누구의 삶도 억압하



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경남 거제의 이 씨 할머니도 그랬을 것이다. 낡고 작은 셋방에 몸을 누일지언정 살기 바쁜 자식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죽음을 선택할지언정 누구의 삶도 억압하지 않는 당당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을 것이다. 이러한 소망에 조차 귀 기울여주지 않는 사회가 과연 정상적인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가난은 언제나 재난이다.

최옥란은 2001년 12월 명동성당에서 농성에 돌입하며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다.

"비록 지금은 저 혼자 텐트 농성을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저와 함께하러라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분명 많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2년간 이어진 광화문 농성이 누군가에게는 지루하고 '너무 우직한' 일일 수 있다. 투입 대비 산출을 매 순간 고민해야 하는 '효율'이 최고의 가치인 사회에서 이렇게 비효율적인 일은 없을지 모른다. 변화를 요구하는 좀 더 혁신적이고 세련된 방법이 있는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광화문을 지키고 있다.

서명을 요청하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들이 2년의 시간을 지나며 단단해졌다.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이 기적 같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광화문을 채워왔다. 최옥란 열사가 이야기했듯, 그녀와 같은 사람들은 분명 많았다.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그녀의 바람은 광화문에서 조금씩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2000년 최옥란 열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세상을 꿈꾸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서로를 억압하는 세상을 끝내기 위해 광화문은 앞으로도 그 자리에 굳건히 살아남으며 희망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 글은 2014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농성2주년 분홍배문학상 우수작 커피공방상 수상작입니다.

소통을 위한 수화반

노란들판 수안

요한 : “상큼한’이 뭐예요?”

수안 : ‘음... 뭐라고 설명하지?(생각하다가) “레몬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

요한 : “씨!”

수안 : ㄱ.ㄱ

노란들판에 주문한 고객님의 수정요청 내용 중에서 요한은 모르는 단어를 나에게 직접 물어봤다. 아주 기초적인 수화만 알고 있던 나는 ‘상큼’이라는 단어를 배워 본 적이 없어 당황했다. 수화 홈페이지에서 찾아봐도 없고 그냥 아는 대로(?) 손과 몸짓으로 표현하려다보니 소통에서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이 무렵 노들야학에서 요한이 한글을 배워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교육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요한을 처음 만난 날 흥은전 쌤은 이렇게 평가했다. “노들야학 12년, 처음으로 몸으로 당하는 차별이 아니라 언어로 당하는 차별의 세계를 만났다. 구화 조금, 수화 조금, 필담 조금... 다 조금. 그래서 ‘조금’ 수준을 넘어가는 대화 불가능. 저 친구의 언어를 내가 전혀 모름. 비장애인사회에서 초중고대학 다 나왔지만 모든 글을 이해 못한다. 자기의 언어가 없는 것 같은 느낌. 입에다 재갈 물려놓은 듯. 포유류가 바다 속에서 물고기들하고 같이 지낸 듯. 답답하지만 그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았을까.” 평가를 읽은 나는 같은 청각장애인 입장이라 어떤 상태인지 잘 알기에, 요한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나의 부족함이 답답했고 더욱 동지애를 느꼈다.

노들센터의 도움으로 의사소통의 장애로 방황하는(?) 이 땅의 수많은 청각장애인들의 입장을 잘 이해 해주시는,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활동가이자 수화통역사인 김철환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분은 청각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그들의 손으로 표현되는 사인인 수화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는 신기한 세계로 이끌어 요한이 배움에 대한 의지를 갖게 해주셨다. 수화로 얘기하고 서로 정보를 교류하게 되니 딴 세상을 만난 것 같은 요한은 그 순간, 미소로 환하게 웃었다. 그게 계기가 되어 김철환 선생님의 소개로 중구장애인복지관에 계신 김정희 쌤이 수화를 가르쳐주시기로 하고 보조교사 정리라 쌤과 함께 매주 목요일마다 노들센터에서 수화 수업을 하게 되었다. 요한과 더욱 잘 소통하기 위해, 그가 잘 모르는 단어를 넣은 문장을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고 있다. 고객의 주문사항이 적



힌 메일을 혼자 못 읽던 그는 이제는 조금씩 이해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감과 희열을 느낀다. 이대로 배움을 계속한다면 혼자 스스로 당당히 읽을 수 있는 날이 오리라는 기대감을 가져본다.

지난 3월호 웹진 노들바람에서 그동안 표출하고 싶었던 마음속에 숨겨둔 그 무언가를 언어 대신 그림으로 보여줬던 그는 아직도 꿈꾸고 있을 것이다. 당당히 세상에 나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서 표현의 자유로움을 맘껏 표출하리라고.....!



[요한 이야기]

나무엔 지금과 과거와 미래가 모두 담겨 있는 것만 같다. 쉽게 짐작하겠지만 나무는 그 자신 이외의 것을 나타낸다 보긴 어려울 것이다. 나무 치고는 그다지 크지도 않고, 울창하지도 않으니 무언가 사연이 있을 듯. 그 사연은 어릴 적, 특히 학창시절 제대로 자랐어야 할 그 시기로 돌아간다. 학교에 있던 그 나무는 자신에게 너무 어려운, 비장애인들에게 너무 익숙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에 적응하지 못했다. 교우들과 선생님들과 단절되어 자신만의 세계로 들어가야만 했던 그 나무는 결국 가지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잘려나가는 듯한 슬픔을 겪어야만 했다. 그렇게 지내다 지금에 와서 새롭게 자신과 소통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났고 서로의 소통 방식으로 수화를 함께 배우고 있다.

이 수화가 지금의 나를 깨웠다. 잘려진 가지엔 이제 새싹이 돋고, 무엇보다 이 나무는 다시 자라고 싶다는 마음에 사로잡혔다. (아마도 그것은 다시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난 말한다.

"이 봄에, 다시 공부하고 싶다."

○○○ 풍성한 배움

노들야학 정자

가을이 오는 풍성한 계절처럼 야학에서도 풍성한 결실의 맺음으로 많은 걸 배웠으면 합니다.

여름에 모꼬지 간다기에 서슴없이 가기로 결정은 하였지만 잘

아는 학생도 없고 했기에 서먹하지 않을까? 했는데 선생님, 학생들 잘 어우러져서 좋았어요.

도착해서 식사 준비를 선생님들이 하시는 걸 보고 놀랐어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음식도 맛있었고. 남자 선생님 또한 설거지, 힘든 일을 다해주셔서 고맙고. 식사 먹을 수 있게 되어서 고맙고. 잘 먹었어요.

차로 이동할 때에 한 선생님이 혼자 저를 안아서 이동해 주셨는데, 그 선생님께 감사해요.

아무런 사고 없이 잘 갔다 와서 감사하고 덕분에 선생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2개월 수업을 하고, 기나긴 방학을 하기에 아쉬웠는데...

길가에 코스모스가 피어서 그윽한 향기를 주듯이 짧은 시간처럼 빠르게 한 달이 가서 방학이 아



쉬웠어요.

저는 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 반가웠고, 또한 배움 그자체가 좋았어요.

가을에 곡식이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

의 지식도 더욱 알찬 삶으로 배움으로 익혀서 풍성한 결실의 계절처럼 만들어가요.

선생님이 열성을 다하여 가르쳐주어 저에게 많은 샘이 솟아오르듯

저희들에게 열성을 다하여서 가르쳐 주심에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밖에 없네요...

교장선생님, 노들야학을 지켜주고 삶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학생 여러분에게 한평생 희생을 다해 주심에 감사해요. 하얀 백발의 머리를 보면은 마음이 아파요... 교장선생님의 수고와 노고가 있었기에 저희들이 배움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교장선생님 머리 숙여 감사·사랑·합니다...

학생 : 최정자

○○○ 나의 저상버스 첫 경험

노들야학 수빈



나는 그동안 저상버스를 한 번도 타 본 적이 없었다. 저상버스라는 것이 뭔지도 몰랐다. 어렸을 때 엄마 등에 업혀 몇 번 버스를 타 본 적은 있었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나에게 집중되는 사람들의 시선이 싫었고 불편했기 때문에 더욱 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

어느 날, 집회를 마치고 학교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콜택시를 부를 시간을 놓치게 되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들야학 학생들과 선생님과 같이 버스를 타 본 것이 나의 저상버스 첫 경험이다.

발판이 끝까지 내려오지 않아 타는 데 조금 지체되었고, 노들야학 선생님이 의자를 두 개 접어 주셔서 그 자리에 휠체어를 세웠지만, 바퀴도 안전하게 고정하지 못했고, 또 안전벨트도 하지 않아 몹시 불편했다. 아니 차에 그런 장치가 있는지도 몰랐다. 15분 정도

걸리는 짧은 거리였지만, 휠체어가 굴러갈까 봐 발로 힘을 주고 지지하느라 온몸이 땀으로 젖었다. 그래도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나름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다.

한가위에 부치는 연애편지

노들야학 가나



「가을이 오는 길목에서」 -노들 김명학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벌써 가을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전 제법 아침 저녁으로는 찬 기운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옛날 서울에서 생활 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짐작으로 누런 황금색으로 물들어 가는 들녘에
 서는 참새를 쫓는 소리와 더불어 딱총 소리가 번갈아
 가면서 나면서 가을은 서서히 푸르워 가는 나의 고향 풍경이
 떠오릅니다. 버 뻗만이 아니라. 다른 가을의 작물들도
 가을의 결실을 향해 제각기 자기의 몫들을 다하면서
 그렇게 가을은 점점 깊어져 갑니다. 그 옛날에 내가 보았던 그런
 풍경들은 세월이 흘러 감에 따라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걸 고향에 갈 때 마
 다 느끼곤 합니다. 주위에 아파트들이 들어서서 한 하나만 보더라도 그런
 생각들이 들곤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 인심 또한 변하고. 암튼 내가 생활했
 던 그런 고향 서울이 아니라는 겁니다. 빨강 감나무로 새파란 하늘이 그림처
 럽 펼쳐지는 그 옛날의 고향이 떠오르는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 옛날
 풍경도 변했지만 나 또한 세월 따라 변해 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롯한 모
 든 것들이 그렇게 변해 가고 있겠죠? 더불어 우리들도 나이를 먹어 갑니
 다. 서슴스럽지 않게 세상살이 인가 합니다. 우리 이 가을의 길목에서
 다시 한번 자신들을 되돌아 보고, 주변도 둘러 보고, 모두가
 바쁘지만 좀 여유를 가지고 새 파란 가을 하늘을
 올려다 보아요. 우리는 모두 몸 건강히 이 풍성
 한 가을을 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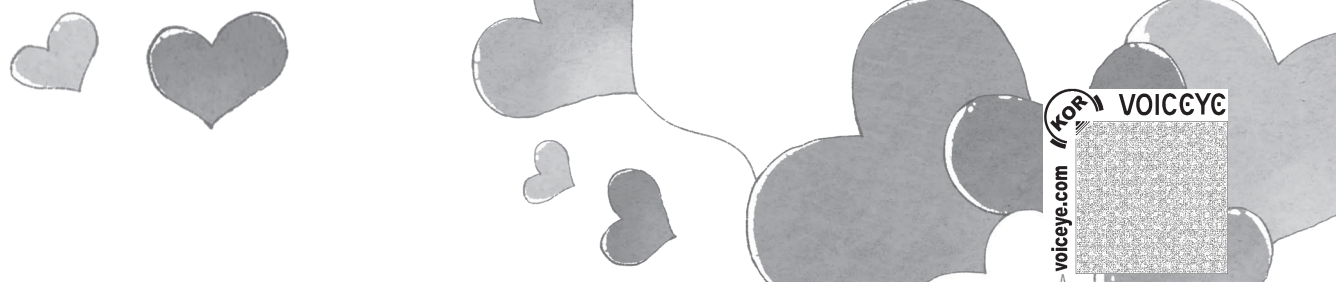
당신에게
 한가위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가나'입니다. 당신을 만나고 나서부터 저
 는 '가나'라는 별명을 썼더래요.

편지를 쓰다 말고 잠시 밖에 나갔다 왔어요. 담
 배를 피면서 밤하늘을 쳐다보았죠. 밝은 달이 꼭
 차 있어요. 구름이 좀 끼긴 했지만 달이 밝은 한가
 위 날이에요.

이 글을 쓰다 보니 당신을 알게 되었던 게 '과연
 언제부터였나?' 곰곰이 되짚어보게 되었어요. 생
 각보다 오래전에 저는 당신을 알고 있는 사람을
 보았어요. 재작년에 시청 앞 광장에서 생명평화대
 행진"을 마무리하는 행사를 할 때였죠. 무대에 마
 지막으로 오르는 사람은 한 여성"의 영정사진을 품
 에 안고 나왔어요. 사진 속의 여성은 나랑 동갑이
 랐어요. 활동보조인이 돌아간 뒤에 불이 난 집에
 서 죽음을 맞았다는 그. 그는 '활동보조 24시간 쟁
 취'를 위해 열심히 투쟁한 활동가였대요. 정작 자

신이 부족한 활동보조 시간 때문에 죽음을 맞았다
 고 했죠. 영정사진을 들고 말씀을 하신 분은 길고
 흰 머리의 공지를 묶고 휠체어를 타고 계셨죠. 누
 군지 아시겠지요? 바로 박경석 교장선생님이셨어
 요. 말씀을 하시던 교장선생님은 말미에는 큰 소
 리로 "씩~, 깍!" 하시며 구슬뜨게 우셨어요. 그 자
 리에 있던 많은 이들이 다함께 서럽게 울었죠. 저
 도 울었어요. 제 옆에 앉아계셨던 분은 붉게 들뜬
 얼굴에 눈물이 가득한 채로 고퍼질 듯이 흐느끼셨
 죠. 그 분은 수유너머N의 이진경 선생님이셨어요.
 그 모습이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그래요. 저는 당신보다 인문학 공동체 '수유너
 머'를 먼저 알았어요. 재작년부터 저는 수유너머N
 과 수유너머R을 오가며 세미나를 조금씩 하곤 했
 어요. 한동안 아무런 세미나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시 '세미나 한번 해볼까?'하는 마음이 들
 지 뭐예요. 수유너머R 누리집에서 '뭐, 할 만한 세
 미나 없나?' 싶어 세미나를 뒤져보았지요. 여러 세
 미나 가운데 당신과 수유너머R이 함께하는 '현장
 인문학'이 제 눈길을 끌었어요. 그래서 '소수적 문
 학 읽고 만들자!'라는 이름의 현장인문학에 도중에
 끼어들어갔죠. 작년 가을 즈음이었어요. 덕분에 그
 때 대학로에서 당신을 처음으로 만났어요. '현장
 인문학'에 참석하면서 당신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
 들을 만났지요. 간혹 뒤풀이에 따라가기도 했고요.



현장인문학이 끝나고 나서 얼마 뒤에 저는 은별, 준호 선생님과 그 두 사람을 따라 온 상용 씨를 따로 만나 술 한잔했어요. 그때 은별 선생님과 준호 선생님이 전에도 그랬지만 또다시 야학 교사를 해보라고 재차 권하더라고요. 저는 생각해 보겠다고 했고요. 술자리가 끝날 즈음이었나? 준호 선생님이 “교장선생님이 이번에 구치소에 들어가 시는데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³⁾을 하니까 한번 와보세요.” 하더라고요. 교장선생님께서 구치소로 들어가시던 날, 저는 검찰청 앞에서 하는 기자회견에 조금 늦게 갔어요. 현장인문학에서 봤던 사람들 몇 말고는 아는 사람도 별로 없던 저는 께다 놓은 보릿자루 같았죠.

그리고 나서 준호 선생님이 그 다음 주인 4월 5일에 교사회의를 하니까 오라고 했어요. 또 그 말을 듣고 4월 5일 교사회의에 별 생각 없이 무작정 찾아가서 참석했었죠.

그 다음 주부터 수업참관을 열심히 했어요. 4월부터 호식이형 활동보조를 시작하면서 어차피 호식이형을 모시러 야학에 다녀와야 하는 상황이어서 한결 편했어요. 수업참관을 한 지 두 주가 지났을 때 갑자기 청솔1반 학생이었던 국현이형이 화재로 돌아가셨죠. 그 전 주 월요일, 청솔1반 수업참관을 하면서 저는 자꾸 밖에 나가려고 하는 국현이형을 옆에서 꼭 붙잡아두곤 했어요. 형은 1교시 때까지만 해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2교시 때는 제법 잘 참고 밖에 나가지 않으셨어요. 다음 주부터는 형이 수업시간에 밖에 잘 안 나가고 잘 참을 수 있지 않을까 혼자 속으로 기대했었죠. 국현

이형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참 안타까웠어요. 제 첫날 수업참관 일지에는 국현이형이 ‘송국현’이라고 자기 이름을 또박또박 쓴 글씨가 아직도 있어요. 일지에 학생분들 이름을 쓰려고 한 분 한 분 여쭙봐서 이름을 썼어요. 말을 잘 못했던 국현이형은 제 일지에 자기 이름을 손수 커다랗게 쓰셨던 거였죠.

그밖에도 당신을 만나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지요. 고병권 선생님이 쓰신 『살아가겠다』와 홍은전 선생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합시다』를 함께 읽었던 신입교사 세미나. 조사랑 선생님을 도와서 경남누나와 지민이형에게 1부터 10까지 숫자를 익히게 했던 수학1반 수업보조 활동. 조금이라도 인연이 있으면 어떻게든 표를 팔아보려고 애썼던 ‘씩씩한 후원주점’(1장당 5천 원씩 교회 공동재정으로 지원해주시고 많은 표를 사주셨던 은혜공동체 교회 분들에게는 더욱이 고마운 마음이 커요). 처음으로 노들텃밭에 갔던 청솔1반 단합대회. 모꼬지 씨름대회와 ‘노들바람 퀴즈대회’, 신입교사 축하공연을 준비하느라 바빴던 노들모꼬지. 그리고 정교사 인준을 받은 교사수련회...

지난 교사수련회에서 저는 국어3반 수업을 맡게 되었어요. 청솔2반 담임도 정민구 선생님과 함께 하게 되었지요. 지난주부터 2학기 수업을 시작했고 저는 딱 두 번 수업을 했어요. 처음 하는 수업인데 시간을 내어 차분하게 준비를 못하고 했죠. 늘 해치우듯이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학생분들에게 아주 많이 미안했어요. 명절 때문에 쉬는 동안 이번 학기 수업계획을 잘 짜봐야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반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당신에게 훌쩍 반한 것 같아요. 제가 당신에게 반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가 봐요. 당신이 이 땅에 사는 장애인들의 진정한 해방을 위해 누구보다 앞에 서서 열심히 싸워왔다는 점! 앞으로도 당신이 치열하게 싸워나가길 바래요. 고병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과 운동이 분리되지 않은 존재로 계속해서 살아갔으면 해요.

지금은 당신이 많이 좋아요. 언젠가는 당신에게 소홀하고 또 언젠가는 당신과 떨어져 지낼 때도 있겠죠. 그래도 당신을 만나는 순간만큼은 후회가 남지 않게 당신을 잘 만나보고 싶어요. 당신을 만나면서 저에게는 뭔지 모를 설렘과 새로운 활력이 생긴 것 같아요.

‘씩씩한 후원주점’ 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합시다』 책을 사서 홍은전 선생님께 사인을 부탁드렸어요. 그때 홍은전 선생님은 사인을 해주시고 이런 글을 적어주셨죠.

"가나, 노들에서 만나서 반가워요. 오래, 만나요."

저도 당신에게 같은 말을 돌려드리며 인사를 갈음할까 해요.

"노들야학, 당신을 만나서 반가워요. 오래, 만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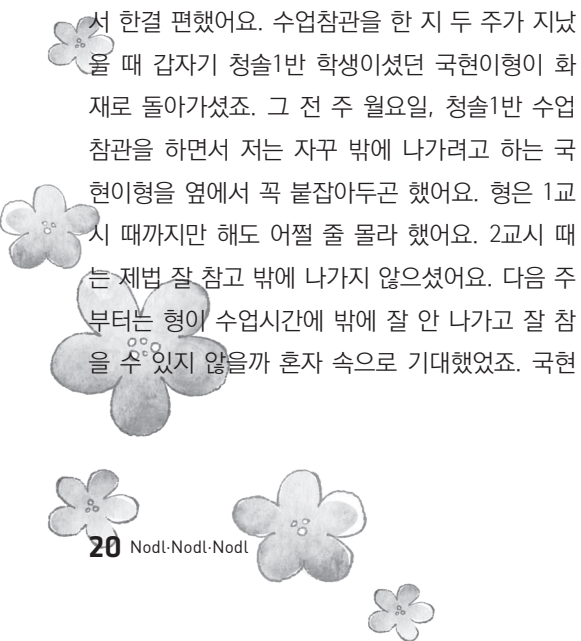
갑오농민항쟁 120주년을 맞는 갑오년 한가위 날, 가나가 두 손 모아 드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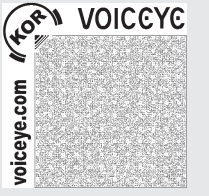
추신 : 한가위 날, 차례를 올리면서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 때문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솔한분들의 넋을 위로해드리세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1)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 해고된 쌍용차 노동자들, 용산참사 유족 등이 연대하여 만든 SKY Act(스카이 공동행동)가 이끈 전국 순회 대행진. 2012 생명평화대행진 행진단은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비정규직 정리하고 철폐, 강제철거 금지 등을 요구하며 이 땅에서 해고, 철거, 난개발 등으로 신음하는 곳들을 돌아다녔다. 내가 참석한 이 집회는 2012년 11월 3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렸고 2012년 10월 5일 제주도청에서 시작한 행진을 마무리하는 자리였다. 집회의 마지막 순서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님이 올라오셨다.

2) 장애해방운동가故 김주영 열사. 그는 2012년 10월 26일 새벽, 집에 불이 나는 바람에 이 땅을 등지게 되었다. 따지고 보니 내가 2012 생명평화대행진 서울광장 집회에서 그의 영정을 본 건 그 사건이 있는 지고작 일주일일 것 지나 여드레가 되었을 때였다.

3) 박경석 교장선생님께서 2014년 3월 2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벌금 200만 원 때문에 자진 노역한다.”고 기자회견을 하셨다.故 김주영 열사 노제 때 차선을 넘었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수배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라 했다. 그 뒤 호식이형 활동보조와 신입교사를 하면서 내가 교장선생님 덕분에 구치소를 가끔 오가게 될 줄은 그때 몰랐었다.





●●●
잠시만 안녕?
노들센터 현수



정말 오랜만에 노들바람 지면을 통해서 인사드리네요. 마지막으로 쓴 것이 97호 [뽀글뽀글 활보 상담소]였으니, 꽤 오랜만입니다. 잘들 지내셨는지요?

그간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익숙한 것과 이별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것은 때론 많이 그립고 가슴 아리게 아플 때도 있었고, 새로운 것은 아직 버겁고 두렵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후회로 가득 찬 하루를 보내기도 하였고, 새로운 일들의 두근거림이 활력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별의 아픔은 자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노들과 인연을 맺고 노들센터 활동을 한 지 작년으로 7년이 되었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도 했을 시간이었어요. 저는 보기와는 다르게(?)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아서 새로운 도전을 과감하게 선택하고 추진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2006년 가을 “노들에서 같이 활동해보자”라는 제안을 듣지 못 했다면, 아마도 주저주저하다가 제 전공을 살려 어느 병원에서 치료사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장애문제와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바로 볼 수 있게끔 이끌어주고 도움을 주었던 소

중한 사람들 덕에 2007년, 노들이라는 공간의 문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저로서는 너무나 감사할 일입니다. 잃은 것보다는 얻은 것이 많았고, 노들과 함께하면서 여러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며 이전과 다른 새로운 나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 그리고 모든 삶이 그렇듯 7년의 시간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습니

다. 일상이 된 노들과 노들센터는 많이 버겁고 힘에 부치기도 했지요. 함께 활동한다는 것, 함께 공동체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과 사건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고단하기도 했습니다. 내 마음 같지 않음으로 인해 서로를 이해하지 못 하고, 어긋남으로 인해 사람을 떠나보내기도 하였지요. 저 역시도 힘들고 괴롭고 내려놓고 싶었고 도망치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7년이라는 시간을 살아낸 것도 역시 사람 때문이었어요.

마음 주고 의지할 수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이 고비 때마다 저를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어떤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일을 도모하는 것이 조직과 공동체의 중요한 목적이지만, 때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오히려 그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관계의 힘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 서로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다는 마음과 마음의 확인들. 힘들 때 ‘밥 먹자’, ‘차 한잔하자’, ‘술 한잔하자’라고 말 한마디 건네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도 큰 힘이고 위로였습니다.

그런 노들을 잠시 떠나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노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쩌면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투쟁을 만들어야 하는 곳이고, 그만큼 더 책임감도 요구되는 그런 곳. 익숙하지 않고 그래서 많이 공부하고 고민해야 하는 자리이지만 노들에서의 경험들이 밑천이 되어서 조금씩 적응하고 있고 더디지만 앞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에서 활동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워낙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아닌지라, 이 자리에 제가 적합한 사람인지, 잘 할 수 있을지 아직도 자신이 없지만...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노들야학에서 치열하게 활동했던 많은 선배활동가들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듯 여러 단위와 현장에서 치열하게 투쟁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저도 노들에서의 경험을 발판삼아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저를 잘 아는 분이건, 조금 아는 분이건, 잘 모르는 분이건, 아예 모르는 분이건; 노란들

판이라는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우리 모두의 삶을 응원하듯, 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주세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짧은 인사를 마치면서 저와 함께 노들센터에서 활동했던 소중한 사람들이 생각나네요. 많은 분들께 고마움을 전해야 하지만, 특히나 이 분들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고생했던 분들이라 더 고맙고 그렇습니다. 김영희, 이경희, 김문주, 문명동, 이동엽, 조한나, 송병준, 박상호, 홍은전, 이라나, 김지영, 정용안, 김지예, 김재환, 홍지연, 안민희, 윤성근, 박선우, 심정구, 조아라,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재범&광호. 고마워요.

그리고 이 인사 글을 읽어주시는 그대에게 감사합니다. 언제 어느 자리에서건 웃는 얼굴로 우리 마주 할 수 있기를...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대부분은 걱정과 두려움의 전조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가진 두려움은 죽음을 막아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가로막습니다.

인간의 삶은 우리가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랑, 진실된 감정, 행복, 자기 존재의 확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가로막는 그림자입니다.”

- 책 『인생수업』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 데이비드 케슬러 저)에서

●●● 언니와 함께하는 일요일

최영은 활동보조인

**4시. 지하철역에서 언니를 만난다.
오전 할보님과 교대.
이때부터 수다는 시작된다!**

먼저 어떤 반찬을 가져왔는지 메뉴를 공개하면서, 미리 저녁 식사 시간이 얼마나 즐거울지 예측해본다. 언니는 비위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내가 챙긴 모든 반찬을 언니가 먹을 수 있는 경우는 복권을 끊어서 오백원짜리에 당첨 될 정도? 그래서 모든 반찬이 검열 통과된 날은 기분이 꽤 뿌듯하다. 그 다음엔 어젯밤에 잘 잤는지 안부를 물어본다. 사실 답은 언제나 NO이지만, 그 속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10%의 밀도 낮은 No일 때 수다는 이어지고 90%의 강력한 No일땐 '언니 그럼 좀 주무세요.'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내 입술은 닫힌다.

이런 간단한 체크가 끝날 때쯤이면 항상 열차가 들어온다. 엘리베이터와 가장 가까운 칸 또는 장애인석이 있는 칸으로, 항상 똑같은 칸에 타고 똑같은 길로 다니지만 열차 칸에 들어서는 순간 긴장이 시작된다. 과한 방어기제일 수도 있지만, 매번 언니에게 쏟아지는 시선과 수군거림 또는 가끔씩 일어나는 별 일에 대한 자동적인 긴장이다. 반면 언니는 내가 조용히 있으면 꽤 푹 잘 자고, 내

가 수다를 떨면 편하게 나와 이야기한다. 이런 걸 언니는 몇 십 년을 겪어왔을 테니까. 면전에서 멍멍 소리를 들어도 한 번 쌍욕을 하곤 재수 없으니 다른 주제로 넘어가자고 하는 언니. 이럴 때 보면 언니는 꽤 단단한 사람이다. 이 단단함이 굳은살 같은 느낌이라 마음이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어쨌든 언니의 방식이다.

수군거림은 그렇다 쳐도 쏟아지는 시선은 한 번도 피해본 적이 없다. 자신들과 다른 신체에게 자연스레 눈길이 가는 느낌인데 이 자연스러움 때론 무섭다. 어떤 신체를 자연스레 쳐다보게 된다는 건 그들이 자신과 같은, 함께 섞여 사는 사람으로 생각되지 않는, 낯설고 접해보지 못한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는 걸 테니까. 이럴 때면 활보를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궁금증이 생겨 읽어 본 책들이 몇 권 떠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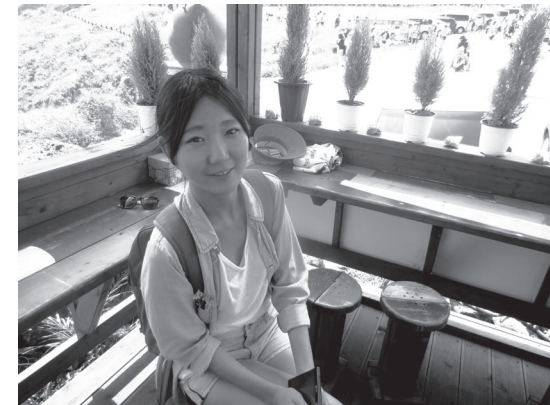
한 책에서 이렇게 말하더라.

**우리 사회는 다양한 신체들을 받아들이며
함께 사는 넓고 수용적인 사회가 아니라고.**

팔 두 개, 다리 두 개, 잘 보이는 눈과 잘 들리는 귀. 더 좁게는 가늘고 긴 팔다리와 큰 눈 높은 코와 같이 만족해야 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사

회.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는 존재일수록 우린 그들을 거리에서 마주치기 힘들다. 장애인이 시설·집에 처박히는 경우나 사람들이 온갖 성형으로 완전 정상 또는 완전 표본의 얼굴을 갖는 경우가 그렇지 않다. 으악, 이렇게 언니와 함께 있을 때면 종종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곤 한다. 언니의 신체, 언니의 존재는 내게 여러 가지 생각과 질문을 떠올리게 하는 촉발제다. 이 사회가 요구하는 웬만한 것에서는 다 비껴나 있지만, 자신의 방식으로 매일을 잘 살고 있음을 일주일에 삼일, 나에게 증명해주는 언니는 내게 정말로 촉발제다.

5시가 조금 넘으면 학교에 도착한다. 도시락을 깬다. 일을 시작하고 몇 달 후부터 내가 밥과 반찬을 챙겨왔다. 언니가 싸오는, 아버님의 입맛에 맞게 아주 잘 질겨 된 밥은 당최 우리의 입맛에는 맞지 않기 때문. 손가락을 내려놓으며 "언니, 그냥 제가 싸올게요. 모두를 위해서..."라고 말한 이후로 우린 더 즐겁게 밥을 먹고 있다. 언닌 수고스럽겠다며 항상 미안하고 고맙다고 하면서도 내가 도시락 통을 먼저 챙기지 않는 날이면 "영은 씨~ 도시락~" 하며 꼭 가방에 넣는 것까지 확인을 하신다. ㅎㅎ 그런데 사실 전혀 수고가 아니다. 그냥 일주일에 최소 세 끼 이상을 같이 먹는 언니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밥을 먹고 살까 노력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대신 언니가 가끔 외식으로 밥을 쓴



다!! 그것도 밀가루, 고기를 못 먹는 내 입맛에 철저히 맞춰서)

6시 30분, 수업이 시작된다. 월요일은 수학, 과학을 듣고 화요일은 사회, 국어를 듣는다. 정규 교육의 기회가 없다 늦게나마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수업 내용은 내 입장에서는 초보적이고 기본적인어 보인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게 대학까지 다닌 정규교육의 참모범학생인 나에게 너무나 재미있다는 거다. 선생님들이 쉽고 재미있게 수업을 하는 덕도 있고 온갖 문제적인 발문과 상황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가령 언니랑 수학 공부 하는 게 제일 재미있는데 구구단을 그냥 통째로 외워버린 언니와 하나하나 모든 걸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3 X () = 18, 괄호를 채우시오' 식의 문제를 몇 줄 풀었을 뿐인데 정글을 헤치고 목적지에 도달한 것 같은 쾌감이 있다. 구구단은 원래 외우는 거 아니냐고? 언니는 정말로 '이이는 사, 이삼육' 이렇게 한글을 외워버렸다. 이게 2 X 2 = 4라는 건 모르는 채..... 무슨 구구단송의 한글가사처럼 말이다@@ 아, 그런데 잠깐 옆길로 빠지자면 언니는 정말로 가사 외우기 천재다. 조용필 광팬인데 모든 노래의 가사를 다 외운다. 한 곡도 빠짐없이! 45년간 노래한 사람도 대단하지만 그 노래를 다 아는 팬도 참 대단한 것 같다

○●○
조사와 점검이
계속된다

노들센터 활보팀

고 매번 생각한다. 그래서 구구단을 할 때마다 욕 나오기 직전까지 가는 언니에게 사람은 모두 각자의 능력이 있다고, 언니의 가사 외우기 실력을 떠올리라고 위로해준다.

10시에 수업이 끝나면 꼭 화장실에 들렀다 집으로 출발한다. 종종 다른 활보들이 성인이 되어서 신변처리를 맡긴다는 게 서로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느낀다는데 난 신기하게 처음부터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았다. 언니가 너무 자연스럽게 차분하게 하나하나 지시해주기 때문인 걸까. 오히려 나는 이 순간에 내가 활보라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렬히 느낀다. 일상의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 언니는 날 필요로 하고 자신의 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몸을 다루어야 하는 내게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준다. 우리의 관계는 이런 게 아니겠나.

누군가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과 그 필요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사람이 건네는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만나는 것!

다시 지하철을 타고 집에 돌아와선 휠체어와 가방을 정리하고, 고운 화장을 지워드리고 잠옷을 입혀드린다. 할 일 끝이다! 마지막으로 하루 종일 활보한 것을 기계로 결제한다. 화면에 내가 일한 시간과 급여가 뜬다. 기분이 좋다. 돈과 시간을 포함해서 우리는 또 이렇게 하루 종일 많은 것을 나누는 거다. 집에 돌아가는 길은 발걸음도 가볍다. 마치 언니를 만난 것, 언니와 그 하루의 세상을 만난 것이 일으키는 잔잔한 물결 위로 발이 미끄러지는 것 같다. 사실 언니를 통해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의 말로 잘 정리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감히 한 가지 확신한다면, 내 맘 속에 이는 물결로 나는 멈추지 않고 세상을 좀 더, 또 다른 방식으로 만나고 있고 언니는 그 물결로 매일을 살아간다는 거다.

건강한 관계고 소중한 관계다. 월요일은 또 돌아온다. 나는 또 기쁜 맘으로 언니를 맞으러 가겠지.



요즘 장애인활동지원기관들이 바쁘다. 연금공단이니 구청이니, 각 관청에서 계속해서 이런 저런 조사와 점검을 나오기 때문인데, 이럴 때 지원기관들은 잘못된 게 있든 없든 일단 긴장을 하게 되고, 할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노들센터에서도 여름부터 바로 어제까지 몇 번의 점검이 진행되었다.

내용을 보면, 일상적인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점검 이외에도, 소급결제 건에 이상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시작해서 이용자의 입원기간이 30일 이상 이어진 때의 활동보조(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활동지원 제도에는 이용자가 30일 이상 의료기관에 지속하여 입원한 경우 활동지원이 중단되게 되어있습니다) 여부, 활동보조인이 해외로 출입국한 기간의 활동보조 진행 여부 등에 관한 것으로, 공단에서 이용자의 입퇴원 날짜와 활동보조인의 입출국 기록을 조사하여 활동보조가 중단되었어야 한다고 추정되는 기간의 결제를 쫓아 뺏아서 활동지원기관에 보내고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식이다. 이게 웃기는 게 입퇴원 후 한 달 이상 지나서 또 입원한 경우인데도 최초 입원한 날과 마지막 퇴원한 날짜만 조사하여, 중간에 퇴원해 지내며 활동보조를 쓴 경우에 중간의 퇴원과 입원을 증명하게 한다던가, 활동보조인의 출입국만 조사하여 이용자 해외여행에 동행하며 활동보조를 한 결제를 조사하게 한다던가 하는 것이다.

아 스푸웨~스

성질은 나지만 조사를 안 할 수는 없다. 그러면 무조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테니까. 그러나 누군가의 사생활이며 개인정보인 입퇴원 기록이나 입출국 기록을 정부라고 해서 마음대로 조사해도 되는 것인지, 그 소명 책임을 이용자나 활동보조인에게 지우는지. 병원에서 환자 본인에게만 제공하는 입퇴원 기록을 발급받기 위해 이용자가 수고와 비용을 들여야 하는지, 아니 애초에 30일 이상 입원한다고 활동지원을 중단하는 자체가 정당하지 등등 떠오르는 의문과 짜증은 끝이 없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부정수급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해가며 활동지원제도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조사와 점검에서 그 누구도, 현재 제도에 문제점은 없는지, 이용자나 활동보조인들을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인지, 활동지원기관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너무나 필요하지만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는 물어본 적이 없다. 소급결제가 왜 이리 많은지,

○●○
꽃동네 가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노들야학 덕민

싸인을 빼먹은 제공기록지는 없는지, 행정서류에 꼬투리 잡을 것은 없는지에만 관심을 쏟는 조사와 점검은 정부가 장애인 이용자와 활동지원기관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8월 사회서비스제도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그 처벌을 강화한다는 개정안인데, 그 안에는

이용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이용권을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 제한하고, 종사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2년간 종사자격을 제한토록 한다는 내용이 있다.

부정수급을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고,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하루도 제대로 살아가기 힘든 장애인들이 수두룩하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최대 3년이나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의 법률을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논의조차 없이 퍽 내놓을 수가 있나. 장애인계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제기해온 문제점과 대안에는 '신중한 검토'만을 답변으로 내놓으며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던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어찌 이리 신중하지 못한가.

사회서비스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관련 법률과 제도 역시 처벌과 통제에만 중점을 두는 '관리'가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두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뇌병변장애인 인권협회 서울협회 회장,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그리고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무를 했었고 현재는 회원 겸 노동당 당원입니다. 또한 2009년부터 3년간 노들장애인야학 총학생회장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 직위를 다 얘기하는지 모르지요? 제 자랑을 하고 싶어서요.

저는 음성꽃동네에서 6년 동안 생활하다가 2004년 11월에 우여곡절 끝에 탈시설하여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때는 탈시설 용어조차도 낯설 때지요. 자랑도 자랑이지만 저는 탈시설해서 나름대로 자립생활에 성공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먼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언론과 인터넷을 보니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전 세계 가톨릭의 지도자이며, 모두에게 존경받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물론 나라의 경사라 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축



복이기도 하고요. 제가 아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진보적인 발언과 가난한 이들을 위한 돌발 행동을 보여주어 연일 이슈지요.

그런데 그렇게 존경받는 교황님이 방한 일정 중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사회복지시설, 아니 제일 큰 수용시설인 꽃동네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꽃동네는 폐쇄적이고 모든 인권이 유린당하는 곳이고 또한 오웅진 신부 개인의 부정축재 의혹이 있는 곳인데 이런 곳을 방문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가톨릭, 개신교, 불교 등등을 모두 통틀어 종교라고 하지요, 보통 종교를 앞세워서 하는 말이 자유, 평등, 인권, 박애, 사랑 등등이지요. 반면 꽃동네에서는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럼 꽃동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분들은 다 거지입니

까? 아니잖아요. 개인마다 인권이 있고, 자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꽃동네는 지역사회 복귀라는 탈시설화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울시는 최근 5개년 계획으로 시설장애인 600명이 시설이 아닌 공동생활가정 또는 체험홈 등 지역사회로 나오게 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과거로부터 변화하는 이 시점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꽃동네를 방문한답시다. 다 좋은데 꽃동네가 뭐하는 데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수용시설이고 음성에만 3000명이 넘는 분들이 자의 반 타의 반 꽃동네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70년대 후반부터 2014년까지 거의 40여 년 동안 오웅진 신부가 문어발식으로 시설을 확장했고 우리나라도 모자라서 꽃동네라는 이름으로 미국, 우간다, 필리핀 등 6개국에 수용시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꽃동네가 발전하기 시작한 계기가 군부독재정권인 전두환이 꽃동네를 방문하고서부터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5공 군사정권에 이어 6공,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까지 역대 정부에서 비호를 받은 듯합니다.

정권의 비호 없이는 꽃동네가 이렇게 커질 수는 없습니다. 오웅진 신부는 10년 동안 국고보조금 횡령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가 있고 부동산실명제 위반, 업무상 횡령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올 2월에는 음성군 시민단체들이 항소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투표할 때 표를 한 사람에게 밀어주는 부정선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사실들만 대충 봐도 오웅진 신부의 인격과 자격이 증명되는 그런 곳입니다.

최근 꽃동네에서 탈시설한 지인이 하는 말이 10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합니다. 한 방에 최소 8명에서 최대 12명까지 몰아넣고 직원은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똑같다고 합니다. 방문객들이 오면 신기하게 무슨 창경원에 원숭이 구경하듯 보고, 사생활도 보장되지 않고, 인권은 유린당하고,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없습니다. 참고로 10년 전 제가 중증뇌성마비장애인으로서 지역사회로 나가서 자립생활을 하려고 하니, 저보고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 꽃동네에 가톨릭의 지도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방문한다는 사실 자체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허울 좋은 말로 치장한 수용시설인 꽃동네를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하루빨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진실을 바로 알고 꽃동네 방문을 취소했으면 합니다. 전 세계의 존경을 받는 가톨릭 지도자가 인권이 유린되는 대규모 장애인수용시설에 꼭 방문해야 합니까?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인가요?

지금도 탈시설해 지역사회에 살고 싶어,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싶어 하는 장애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탈시설해서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거주할 아파트도 있고, 평생 같이 할 배우자를 만나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마냥 행복한 일만 있는 게 아니지만, 수용시설에서 반복되는 생활보다야 골백번이 낫지요. 갈수록 탈시설한 장애인 후배들이 많이 보여서 저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이라던 꽃동네가 얻어먹는 것을 넘어서 이제 도와주는 사람 위에 군림해 모든 것을 차지하려 하고 있는 것이 꽃동네의 본질적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폐쇄적이고 인권이 유린당하는 꽃동네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알고, 가톨릭의 지도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꽃동네 방문을 취소하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이 글은 노들야학 배덕민 학생이 5월 22일 주한교황청대사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열린 교황의 꽃동네 방문 취소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글입니다.

당신에게, 나에게 프란치스코 교황이 남기고 간 메시지

[8월 14일 한국 주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희망의 지킴이가 된다는 것은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으며, 특히 난민들과 이민들, 사회의 변두리에서 사는 사람들과의 연대를 시행하여, 한국 교회의 예언자적 증거가 끊임없이 명백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심은 구체적인 자선 활동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 그것도 꼭 필요한 것이지만 — 사회, 직업, 교육 수준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사업적인 차원으로만 축소시키고,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자신의 인격과 창의력과 문화를 존엄하게 표현하여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8월 16일 꽃동네 영성원에서 평신도사도직 단체를 만난 프란치스코 교황]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간 증진이라는 분야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도록 격려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저마다 품위 있게 일용할 양식을 얻고 자기 가정을 돌보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 뭔지도 몰랐던 인권교육, 어느새 1년

노들야학 기영



행 선생님이 누나는 잘할 수 있다고 함 해보라고 해서 전 한다고 말하고, '나야'에서 하는 교육 워크숍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또한 워크숍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열심히 들어보자 하고 하루에 8시간씩 교육을 받아보면 뭔지 알겠다고 생각하고 눈도 크게 귀도 크게 들었지만 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ππ 난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2~3번 받아보니 재미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교육을 받고 나서 아쉬웠어요. 1~2번만 더 하면 좀 더 알 수 있을 거 같아서.

교육장은 안 좋은 점이 있었고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안 좋은 점은 너무 아팠어요. 휠체어에 타고 8시간씩 앉아서 교육을 받는데 너무 힘들었고 쉬는 시간에 누워서 쉬는 곳도 없는 게 아쉬웠어요. 좋은 점은 화장실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누워서 볼일을 봐야하기 때문에 어디 나갈 때마다 기저귀를 하고 나가곤 했는데, 교육 때도 전 평상시하고 똑같이 기저귀를 하고 갔어요. 근데 점심시간에 저의 활동보조 고모가 너 누워서 볼 수 있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권교육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전 잘 몰라서 안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담임 허신

제가 아는 분이 파트너를 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저의 바람대로 아는 분이 되었습니다. 배승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무지 좋았습니다. 안

심도 되고, 뭔가 모르게 내가 못하면 알아서 해줄 수 있을 거 같았습니다. 은근히 제가 기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웃기는 생각이네요.

첨으로 교육을 나가보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첫 교육을 나갑니다. 2013년 9월 30일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난 떨리지는 않았습니. 다른 분들은 떨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지만 난 떨리지도 않았습니. 처음으로 수락중 학교로 나갔습니.

아직까지 잊지 못합니다.

왜냐면 그 학생 눈빛이 생각이 납니다. 나만 보면 웃고 나만 보면 피해버리고 그래서 속으로 저애는 왜 그래, 이상하게 본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 배승천 선생님이 자꾸 닉네임을 안 불러가지고 좀 신경이 거슬렸습니. 난 내 이름이 싫은데 그래서 '천일화'라고 해달라고 했는데 녀 하시네 하면서 잘 마치고 나오는데, 아까 내 눈을 피하고 했던 학생이 나를 선생님하고 부르면서 그림 그린 거를 찼습니. 함 봤습니. 근데 바로 저였습니. 그림을 주면서 "선생님 용기를 내세요.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너무 감동이었습니. 이때부터 뭔가 모르게 고민이 생겼습니. 어떻게 하면 학생들한테 더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잘할 수 있을까 하고. 인권교육을 나갈 때마다 전 고민이 생겨버렸습니. 지금까지 고민입니. 아마도 내가 하면서 풀리지 않는 내 숙제입니. 나오고 나서 승천선생님하고 대화를 했습니. 오늘 느낌 어땠어요? 우리 둘 다 좋았어요 이야기를 했습니.

다음 교육도 계속 나가면서 난 듣기 싫은 게 있을 때가 있었습니. 다들 '누나가 에이시아' 했습

니. 제가 봐도 저보다 영애언니가 더 많이 잘하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 듣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지 잘 모르나보습니.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 이 글 읽은 분들은 알아듣겠쵸. ㅋㅋ

학교에 참~ 여러 학교가 있습니. 어떤 학교는 턱도 많고, 어떤 학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 또 들어가는 데가 계단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휠체어 들고 올라가는데 계단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깐 미안해지고 그러면서 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 그래서 전 학생들에게 열심히 알려줘야겠다, 시간을 쪼개서 인권교육이 있으면 나갔습니. 그리고 좀 솔직히 ㅋㅋ 이야기를 하면 돈도 들어오고 너무 좋았습니. 그 돈으로 내가 사고 싶은 옷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또 목욕 의자도 살 겁니. ㅋㅋ 돈도 벌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나한테는 좋은 일자리.

교육하러 가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 한 가지는 학교에 장애학생이 있는 반입니. 반응 두 가지로 나뉘습니. 침묵하는 반이 있고, 시끄러운 반도 있습니. 그래서 교육하는 사람도 힘들고 교육받는 학생도 힘들고 이걸 저뿐만 아니라 다른 강사님에게도 똑같이 문제입니. 전 이렇게 생각합니. 언젠가는 이 문제가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 그러기 위해선 저랑 강사님이 모두 더 생각하고 더 고민할 문제입니. 또 문제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가는 데가 강서구, 강남구인데 차비도 3000원 들지만 비장애인 분은 차비가 조금뿐이 안 들어가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들은 3000원은 큰돈입니. 그러므로 제 생각을 한다면 돈을 조금만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



교육을 나가서 교실에 들어갔을 때 2~3번 정도 학생들이 아~ 냄새난다! 더럽다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 그래서 얼굴도 빨갱게 달아올랐습니. 할 말도 막히고 했습니. 그날은 제가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모르겠습니. 정신도 없었습니. 그 이후부터 난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내가 나를 버리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무시하고 교육을 했습니. 앞으로 교육 나갈 신입 강사님한테 이야기를 하자면, 그 소리 듣는다면 무시하시고 당황하지 말고 당당하게 교육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학교에 계단을 없애주시고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주시고요. 들어갈 때 경사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 승천 선생님하고 저하고 거의 1년 되게 같이 했는데 이번에 파트너를 바꿨습니.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걱정했는데 하지만 바뀐 파트너와 잘하고 싶고, 더 나가서는 저 혼자 나가고 싶은 마음입니. 그래서 열심히 교육도 나가고, 배우고, 하고 싶어요.

○●○
활동가 대회를
다녀온 후

센터판 운영



안녕하세요.
저는 센터판 엄순영입니다.

처음에 활동가대회라는 것이 있다는 말을 듣고, 가서 뭐하는 걸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활동가대회에 전국 센터 활동가분들이 많이 모여서 참여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하

는 게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루하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재미있었습니다.

첫째 날에는 소개하는 시간과 사람들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고 마무리하였고, 둘째 날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온 외국 활동가들과 소통하고, 그 분들의 노래와 그 나라의 유명한 것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래를 배우고 앞에 나가서 같이 부르고, 뜻 깊은 경험이었다고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뒤풀이 시간을 가졌는데, 맛있는 것도 많이 나오고, 맛있게 잘 먹고 온 기억이 납니다. 음식도 직접 해서 주셔서 더 맛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장기자랑 시간을 가졌는데, 노래도 같이 부르면서 더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두 팀을 나누어서 서로의 센터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각 지역의 대표적인 물건을 가져와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서울을 대표하는 물건을 소개할 때 서울지역의 남자활동가 한 명이 서울. 신. 문. 을 가져와서 모두가 빵 터졌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날에는 민들레야학에서 준비한 연극을 보았는데, 연극하시는 분들이 연기를 잘하셔서 재밌게 보았던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연극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에 문제가 있을 때 손을 들어 그 장면을 자기가 상황을 바꿔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것도 하나의 공부가 되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연극을 보고 고쳐야 할 상황에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처음 다녀온 활동가 대회였지만, 재밌고,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내년에 활동가 대회가 또 있다면 가고 싶습니다.

전쟁터가 만난 바닷가

노들야학 재연



이글을 내가 쓸 줄이야 이놈에 노들 미워....

여행 갔다 온 지 두 달이 돼 가는데 참 일찍도 쓰라고 한다. 부담스럽게 이게 뭐니 쓴다고 했으니깐 써야지. 난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만 쓸 거. 최선을 다해서 써 볼게. 골치 아픈 글 숙제ㅋㅋㅋ

노들장애인야학은 일 년에 한 번씩 여행(모꼬지)을 가지. 7월 18일~20일 2박3일로 강원도 양양군 광진리 해수욕장 가기로 결정을 했어. 한번 여행 가는 게 쉽지만은 않는 거....

준비전쟁 : 편의시설 잘 되어있고 100명의 인원이 다 같이 가려면 관광버스 두 대. 내 몸과 내 발과 같은 전동휠체어랑 수동휠체어 가려면 스타렉스 두 대 있어야 되고, 중요한 거, 가서 먹을 거야. 뭐 먹지? 뭐 필요하지? (한 번 가는데 고민할 게 많고 챙겨야 할 것도 많고... 이래야 노들이지) 준비 끝ㅋㅋㅋ

활보 전쟁과 회비전쟁 : 학생들은 대부분 중증 장애인이라서 활보를 이용하지. 활보가 필요한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모꼬지를 안 가겠다고 하거나 활보가 못 가겠다고 말하면 딱 활보 구해서 가야 하고 휴~(센터 전화기 불 나) 소외감 들어서 활보를 일부로 데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남의 도움 받지 않아서 좋지 뭐) 올 사람은 어떻게든 와. 모꼬지를 가려면 회비 내야지(심각해). 모꼬지 회비가 한 사람당 2만 원.... 회비에 대해서 말들이 많냐. (중요한 문제니깐) 다른 반은 모르겠는데 불수레 반은 회비 가지고 어찌다보니깐 한 시간 동안 토

론을 하게 되더라. 활보들 꺼 이용자가 내네 마네. k양의 말.... 활보들 꺼까지 이용자가 내야하면 부담스럽다, 활보가 회비 못 낸다고 하면 난 모꼬지 안 가겠다. 영어쌤의 말.... 회비 얘기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한 시간이 지났네요. 회비는 활보랑 잘 얘기해봐라, 얘기해 보지 않고 그러지 말고, 2박3일 동안 밥값 술값이라고 활보한테 얘기하라고 이만 원보다 더 먹었으면 더 먹었지 활보들이 덜 먹지는 않을 거다. l양의 말.... 활보한테 잘 얘기해보고 정 안되면 만 원이라도 활보가 준다면 내가 3만 원을 내겠다고 하네... 학생들이 하는 말이 가지각색이야. 당연히 이용자가 내야 하는 걸 알고 있다, 어떤 학생은 난 활보가 꼭 필요한 사람인데 돈까지 내라고 하기가 미안하다, 비싸다고 비

싸다고 노래를 불러, (누구한테 그 돈이 부담스러워) 돈으로 따지면 여행 2만 원 쓴 거지. 알아서 잘 해결했을 거라고 믿고..... 드디어 기다렸던 여행가는 날. 5시에 노들야학에서 만나서 저녁 먹고 가기로 했어. 몇 명의 학생들은 일찍 와서 기다리면서 수다를 떨고 있었어. 한 명 한 명 한 명씩 와서 어스새 교실이 딱 차게 사람들이 모여서 저녁밥을 먹기 시작. 너도 나도 쌤들도 활보들도 밥을 먹는데 굶은 사람처럼 어찌나 잘 먹는지.... 지금 안 먹으면 이따 배고플까 봐 그냥 먹는 사람도 있겠지. 다 먹은 후에 엘리베이터는 바빴어. 사람들은 줄 서 있고 밖에서는 관광버스 두 대랑 스타렉스 두 대랑 와 있어서 버스 한 대는 남자들이 다른 버스는 여자들이 타기로 했어. 활보들과 노들쌤들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학생들을 들어서 일일이 차에

태우기 시작. 안고 들고 업고 개고생ㅋㅋㅋ (힘들어 니가 해) 차에 앉아놓고도 어떻게 하면 편한지? 불편한 게 뭔지? 괜찮은지? 등등등 물어서 안전하게 해줬어 (평소에는 난 몰라라하고 이때는 잘 해주는 척하나? 어쨌든 땡큐땡큐다)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는 누가 누구 낀지 알아보게 이름 적어서 스타렉스에 실었을 거야. (이름을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난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음. 안 적었으면 누가 누구 낀지 어떻게 알아) 음..... 버스에 앉아있기 힘든 학생이 있어서 센터차(리프트차)가 3명인가 4명인가? 태워서 다 같이 출발. 잘 가면 노들이 아니지. 센터차가 고장(그러게 미리 수리 좀 하지) 어떻게 해서든 오긴 왔네.

강원도 양양군 광진리 해수욕장에 도착. 도착하



자마자 활보들은 자리 차지하고 있고 이용자들이 새벽에 뭐해. 자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자기엔 너무 아쉬웠어. 학생들은 아무 불만 없이 잘만 자더라. 너무 당연하다시피 자니깐 당황스러웠어 (난 밤 잤다. 등이 배겨서 잠을 못 자겠어). 날이 밝아지니깐 학생들이 한 명 한 명 한 명씩

일어나는 거야. 학생들이 일어나니깐 쌤 한 명 한 명 일어나서 밥하기 시작.100인 분 밥 하려니 죽을 맞이했을 걸(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몇 시간이 걸려서 밥 하긴 했네. 활보들은 이용자 챙기느냐고 정신없고 (너 한 입 나 한 입). 쌤들은 밥을 먹었나 몰겠다. 알아서 챙겨 먹었을 거야(안 먹을 쌤들이 아니니깐).ㅋㅋ

여기까지 왔는데 물 놀이를 안 할 수 없지. 안전조끼 입어주고 튜브 들고 너도나도 물속으로 풍당. 구경만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걸 보고만 있을 쌤들이 아니지. 어떻게든 들어가게 해주지. 너도나도 활보들도 학생들을 들어서 물속에 풍당? 풍당시키고 난 몰라라 하면 학생들 죽어(감옥 가기 싫은가 봐? 싫겠지). 안전하게 학생들이 놀 수 있게 조끼 입



히고 튜브 들어서 물속에 들어가서 편한 자세로 튜브에 누워있거나 튜브 속에 다리 집어넣고 있거나 다 들어왔으니깐 놀아보자고ㅋㅋㅋ 혼자 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쪽에서는 물싸움, 한 쪽에서는 아무나 잡아서 엮어치기(짠물 다 먹네), 또 한 쪽에서는 튜브끼리 너도 나도 잡고 잡고 잡아서 어느새 두 팀이 돼서 꼬리잡기를 하고 있었어. 나도 나도 너도 너도 짠물이 눈코입귀 다 들어갔

네(어휴~~ 정말 짜네). 이젠 내 얘기할 차례가 왔구나. 난 아침밥 조금밖에 안 먹은 상태..... 내가 싫어하는 카레밥인가? 뭔가가 나왔길래(밥이 뭐가 나왔는지 모름. 기억 안 나). 내가 잠 못 자서 밥을 안 먹는다고 했나? 기억은 안 나지만 암튼 내가 활보한테 난 밥 안 먹겠다고 그랬더니..... 다른 반찬

가지고 오셨나? 안 먹으면 안 된다고 하길래 조금 먹었지. 내가 먼저 물속에서 놀고 있었지롱. 사람들이 들어오길래 같이 놀았지. 놀다 보니깐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거였어. 계속 놀고 있었는데 활보가 하는 말.... 그만 놀고 쉬자. 나가서 뭐 좀 먹자(더 놀고 싶어. 아줌마 가서 먹고 와요). 너 놔두고 나만 먹으면 잘도 먹겠다(물 많이 먹어서 배 안 고프는데 이럴 때 놀아야지 언제 또 오겠어요). 재작년에도 그 말 했어. 그래서 실컷 놀았잖아. 안 속아(.....그래도). 알았어. 일단 씻고 뭐 좀 먹으면서 쉬다가 다시 들어와서 놀자(네 좋아 좋아).

내가 물속에 오래 있었나? 힘이 많이 빠졌나? 물에서 나오자마자 몸에 힘이 다 빠져서 기운이 없어서 나도 모르게 주저앉아 버렸어. 조금 앉아 있으니깐 걸을 만해서 목욕탕으로 갔어. 씻고 나오고 밥 좀 먹고 쉬다 보니깐(밥 먹고 쉬니깐 기

운 차렸어). 어느새 학생들이랑 활보들이랑 쌤들이 한 명 한 명 명씩 씻으러 가는 거. 간식으로 옥수수 주네. 먹고 쉬다 보니깐 각종 게임 한다고 신청을 하라고 하네(난 안 해). 눈 오래 안 감고 버티기, 씨름, 닭싸움?인가 뭔가 각종 게임들은 하는데(잘들 논다) 누가 지고 누가 이겼는지 관심 없다. 좀 있다 저녁 먹고 1조~8조까지 조가 있다. 이름을 불러싸서 조별로 가래(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안 할 수 없고). 난 속으로 어떤 거 하길래 갑자기 조별로 앉으라고 하나? 그랬지(준비팀에서 뭔가 준비를 잔뜩 했나본데 잘 따라줘야지). 새로운 게임 시도네. 노들이 어디 아픈가? 왜 안 한 짓을 하지? 각종 게임을 하더라. 그림 그리기, 스피드 퀴즈, 노들바람 퀴즈 맞추기 이 게임하는데 재미있더라. 그림 그리기는 조별 한 명이 그림 문제를 받아서 뭐 그려야 할지 생각해서 말은 하지 않고 그림만 그려서 다른 사람이 맞추는 게임(살짝 그림 설명을 해줬지롱ㅋㅋㅋ 모레 ㄹㅇㅇ). 맞추는 조도 있는가 하면 못 맞추는 조가 있어. 다들 집중해서 잘 하더라. 스피드 퀴즈랑 노들바람 퀴즈는 안 가르쳐줘도 대충 알 거야.

다 끝내고 이어서 뒤풀이(빠질 수 없는 약 먹는 시간 카~~). 삼겹살, 회, 소시지, 과자,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남. 우리 약..... 술~~ 뒤풀이에 술이 빠지면 노들이 아니지. 서로 자기 먹기만 바쁜 입과 손들.... 잘도 먹는다. 술도 안주도 다 먹었으니 치우는 분위기? 완전 혈이다

혈이야. 하긴 졸리는 사람은 자는 건 맞아. 노들한테 좀 실망했어. 속상하기도 하고. 내 눈엔 학생들이 억지로 자는 게 보이는데 쌤들은 안 보이냐? 보이는데 일부로 눈 감고 못 보는 척? 에이 말을 말자. 같이 술을 더 먹고 싶어서 2차에 갔는데 같이 먹고는 있는데 혼자 마시는 기분은 뭘까 싶네. 끼리끼리 노네. 결국엔 나도 술 더 마시고 싶었는데 그냥 누워있다가 자버림..... 등이 배겨서 누워서 못 자고 엎드려 잤어. 자다 깨다 그랬는데 술기운 땀에 잠긴 잤다.

담날 아침..... 사람들 중얼중얼거리는 소리에 난 잠 깬다(사람들이 잠도 없나?). 씻고 밥 먹고 물속에 들어갈까 했는데 단체사진 찍고 출발한다고 하길래 놀지 못하고 짐 싸고 다시 차타고 출발. 차 안에서 너도나도 활보들도 쌤들까지 잠 부족으로 인해 하나같이 쿨쿨..... 안 자는 사람은 폰을 만지작 만지작거리고 차 안에 티비 봤겠지 뭐. 어느새 노들로 왔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스타렉스 차가 안 왔네. 다른 사람들은 휠체어 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난 모꼬지 출발 때 내 전동휠체어 노들 놓고 가서 먼저 집에 간다고 빠져나왔지. 다들 그날 집에 잘 갔을 거라고 믿고, 전쟁 같은 일들이 나중엔 추억처럼 될 거야.

여행 전쟁은 다 끝났지만 노들 전쟁은 아직 안 끝났어. 지금부터 시작이지.....끝.....



다음에는 어디를 가보고 싶어요?

노들센터 성근

추석이 지나고 무더위가 한풀 꺾인 9월 15,16일 처음으로 노들 체험홈 입주자 분들과 즐거운 엠티를 다녀왔다. 장소는 강원도 옥계 한국 여성수련원... 흠 조금 멀긴 했지만 모두 즐거워하는 분위기... ㅎㅎ 돌아오는 길에 주문진도 들러서 오징어와 해산물도 잔뜩 사고 너무 즐거웠고 즐거워했던 노들센터 체험홈 첫 엠티를 같이 간 체험홈 분들의 생생한 인터뷰를 통하여 자립생활이 얼마나 즐겁고 좋은 것인지를 알려주마...

인터뷰 질문_1) 이번 여행은 재미있었나요? (재미없었음 욕을 해도 좋아요...)

●무호 너무 재미있었어. 시간이 너무 짧아 아쉬웠지만 다음에는 최소한 2박3일 이상 했으면 좋겠어.

○기영 여행은 너무 재미있었는데,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아서 머리를 5번이나 부딪쳤어요. 그 중 한번은 너무 세게 부딪쳐서 열흘 동안 이마랑 목이 너무 아팠어요.

◎문주 지금은 괜찮아요?

○기영 네. 지금은 괜찮아요.

◎문주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기영 쓰라고 한 게 있었는데, 다른 분들은 안 적었는데 저만 솔직히 적었어요. 적고 보니 속이 시원했어요.

◎문주 혹시 뭐라고 적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기영 욕은 안 적었어요. ㅎㅎ

◎문주 명선 씨는 어떤 게 재미있었어요?

◆명선 게임이요.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게임한 게 재미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감도 생겼어요.



◎문주 게임하고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명선 네.

◎문주 야~호 자신감이 생겼으니 이제 자주 놀러가요.

◇상윤 나도 재미있었고,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진짜 좋았어요.

◆남옥 나는 바다를 보면서 돌아다니는 거하고 시장간 게 좋았어요. 그리고 빵 터지는 것(폭죽놀이)이 너무 좋았어요. 속이 뽕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불이 확 타고 하늘로 날아가는 거(풍등) 그 것도 처음 해보는 것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문주 혹시 우리 프로그램 중에서 '나쁜 것, 싫은 것 버리기' 했을 때, 나쁜 건 잘 버리고 왔나요?

◆남옥 네. 나쁜 거 다 버렸어요. 그런데 또 있어요...

◎문주 자꾸만 버릴 게 생겨요?

◆남옥 네. 버리는 게 잘 안 되고 힘드네요.

◎문주 상윤은요?

◇상윤 차타고 멀리 가고 돌아다니니까 좋았어요. 경치도 너무 좋았고, 다음에 또 가고 싶어요.

◆남옥 나도 경치도 좋았고, 바닷가에서 술 먹었는데 하나도 안 취해서 좋았어요.

◎문주 다음에도 또 갈까요?

◇남옥, ◇상윤 당연하지, 또 가고 싶어, 나도 또 가고 싶어.

◎문주 혹시 혼자서 한 번 가보고 싶지 않아요?

◇남옥 혼자서 아니고 다 같이.

◇상윤 나는 활보랑 둘이서 가보고 싶어.



인터뷰 질문_2) 여행 가서 느낀 점은 어떤 것이 있었어요?



○기영 저는 나쁜 거 풍등에 띄워보낼 때 좋았어요. 그리고 밥 먹고 산책할 때 사진 찍다가 남옥언니를 만나 같이 사진 찍어서 좋았어요.

◎문주 나는 침대에서 창문을 바라볼 때 바다가 보여 너무 좋았는데 혹시 바다에 들어가 보고 싶지는 않았나요?

○기영 나는 바다를 보는 것만 좋아하고, 들어가는 건 싫어해요.

◎문주 혹시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요?

○기영 닉네임인가, 참여자 모두의 별명을 짓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무호 나도 먼 곳을 올 수 있구나. 자유 시간에 혼자 바닷가에 가보았더니 “나도 갈 수 있구나.”라고 느꼈어. 그리고 풍등 날릴 때 너무 좋았어. 나도 날아가는 느낌이 들었어.

◎문주 그래도 별명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나요?

○기영 아니요. ㅎㅎ 내 별명만 생각나요. ㅎㅎㅎ 그리고 남옥언니 활보 별명 참나물이 기억나고, 그리고 내가 지어준 거 “하늘”이 기억나고요. 제 별명은 “여선생님”이었어요.

◎문주 1박2일이 짧았나요?

○기영 네 짧았다고 생각해요. 2박3일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엠티는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여러 사람도 알게 되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사람들의 속마음도 하나씩 알게 되고... 1년에 두 번 정도 이런 여행이 있으면 좋겠어요.

◆명선 나는 다음에는 짝공이 생기면 짝공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문주 혹시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명선 네.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시들었어요.

◇상윤 난 그런 데를 처음

갔었는데 다른 데는 진짜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바다를 보니 느낌도 상쾌했고...

◇남옥 나도 그래. 바다도 보고, 우리 다 같이 와서 속이 풀렸어요. 다른 친구들도 다 같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만 가는 게 아니고 많은 장애인 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상윤 그리고 또 바다냄새도 좋았는데, 정신도 맑아지는 느낌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부글부글 끓어요. 올 12월 말에 체험홈에서 나가게 되면,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깐.



인터뷰 질문_3) 다음에는 어디를 가보고 싶어요?



●무호 수목원이나 숲길을 가고 싶어.

○기영 난 무조건 잠자리가 편한 곳. 그래서 옥계를 추천한 이유도 잠자리가 편하고, 같이 가면 좋겠다 했어요. 좋지 않았어요? ㅎㅎ

◎문주 난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는데 바다가 보이는 게 너무 좋았어요. 바다가 보이니깐 외국에 신혼여행 온 것처럼 좋았어요.

◆명선 제주도도 한 번 가보고 싶어요. 뭐 여건이 안 되면 꼭 제주도가 아니어도 어디든 좋아요.



1박2일 동안 정작 바다는 얼마 보지도 못했으면서, 이 사람들 말끝마다 바다바다를 외우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체험형 여행을 준비하면서 담당자인 지연, 재환은 그저 그런 여행이 되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다. 여행 하루 전날 호리병 모양의 유리병을 사러 다니고, 동대문 완구시장에 폭죽을 사러 갔다. 유리병이면 됐지 거기다가 또 핑크색 리본을 묶어야 한단다. 폭죽도 많이도 사왔다. 한마디로 '오바'였다. 그런데 추억은 그렇게 탄생하는 거였다. 유리병에 해변의 모래를 담아 자신에게 쓴 편지를 담은 오글거리는 짓도, 멀리 날려버리고 싶은 것을 적어 폭죽과 함께 터뜨려버리는 이벤트도, 계획에 없던 풍등을 날릴 수 있었던 것도, 다 이 오바쟁이들 덕분에 가능했다. 첫 여행이 너무 좋아서 걱정이다. 두 번째 여행은 어찌지? 그건 내년에 생각하자. 남옥, 명선, 기영, 상윤, 무호, 그리고 활동보조인 분들! 노들센터 지연, 재환, 성근, 문주, 민희, 아라, 지예, 우리 이만큼 잘 놀고 왔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 군부대에 인접해 있던 옥계해변에서 폭죽놀이와 풍등을 날리기 위해, 민희 활동가가 직접 군부대에 전화를 걸어 허락을 받아냈어요. 우린 정말 못하는 게 없는 사람들이죠? ㅎㅎ

❁ 인터뷰 질문_4) 프로그램 진행했던 것들 중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요? ❁

○기영 소원 써가지고 유리병에 넣은 것도 좋았어요. 소원을 너무 많이 써서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한 10년 후에 내 나이가 45살 되었을 때 열어 볼 거예요. 그리고 나쁜 것들 날려 보낸 것도 기억에 남아요. 나한테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쓰고 싶었는데 그냥 사람들이라 썼고, 그리고 뱃살이라고 적었어요. 풍등 날려 보낼 때 속 마음이 시원했어요. 너무 예뻐고... 주문진 시장 들려서 오징어 사온 것도 기억에 남고요.

◎문주 다음에도 참여하고 싶나요?

○기영 네. 침대만 있으면 다 가야죠. 단 라꾸라꾸

는 안돼요.ㅋㅋㅋ 제가 그래서 야학 모꼬지 가는 것도 안 갔어요.

◆명선 나쁜 것은 다 버리고,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있고... 내년에 한번 보려고요.

◆남옥 난 별명 짓기는 재미있었는데, 프로그램에 글씨를 많이 쓰는 게 싫었어요.

◇상윤 난 풍등 날리는 게 좋았어요. 속상했던 것도 날려 보내고... 그때 내 마음도 날려 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올라! 스페인!

14. 10. 13 노란들판 해니

일정 : 8/29 ~ 9/10 (10박 12일)

목적 : 일상 탈출, 휴식, 잠깐 이 나라를 떠나고 싶어서...

도시 : 말라가, 세비아, 그라나다, 바르셀로나

올해 안에 해외로 여행을 가고 싶었다. 스페인으로 정하고 바쁜 일상 속에 게으름을 부리며 준비를 겨우겨우 해나갔다. 떠나기 두 달 전쯤 여행을 통해 가격이 저렴한 러시아항공으로 예약했다(독일 루프트한자로 일찍 예약했다면 비슷한 가격으로 비행기 표를 구매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 좀 아쉬웠다). 이번 계획은 초짜 기획자인 헛이 담당하기로 했다. 시백 왓, 이번 계획을 통해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자신감을 갖게 될 거라고...

해외 숙소 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했는데 우선 저렴한 데를 찾았다. 그러다 보니 지도상에서는 시내와 그리 멀지 않다고 생각한 곳도 실제로 가보니 버스로 25분 거리나 되었고, 창문을 열면 기대했던 바깥 풍경이 아닌 식당 복도만 보이는 호텔도 있었다.

도시별 이동은 스페인 열차 렌페로 예약했다. 고마운(?) 블로거들의 경험담을 참고하며 열심히 예매를 시도했지만 참 어려운 일이었다. 익스플로러보다는 크롬을 좋아하는 스페인 사이트. 다른

나라 인터넷을 거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겨우 접속에 성공, 출발 전날까지 숙수무책으로 예약을 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결제까지 성공한 순간, 기쁜 마음에 나도 모르게 “으앗!” 탄성을 질렀다.

꼭 예약을 해야 오랫동안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는다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알함브라 궁전, 세비아 대성당도 블로그에서 정보를 얻어 관람표를 예매했다.

여행 전날 밤, 2년 전 신혼여행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무조건 일찍 일어나기로 다짐했다(당시 짐을 새벽까지 싸고 공항에 너무 늦게 도착, 출발 10분 전에 비행기에 탑승했다. 스텐더는 우리에게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고 먼저 발견하는 특혜를 주며 늦었다고 빨리 자신을 따라오라며 혼냈고, 항공사에서 우리 이름을 부르며 탑승을 요청하는 방송까지 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서툰 대책 없는 느긋한 여행자들이었다). 뼈아픈 경험

을 한 탓에 새벽 6시에 기상, 11시에 출발하는 비행기에 무사히 탑승했다.

말라가

러시아 항공사인 아에로플로트를 이용, 모스크바를 경유했다. 모스크바 공항 면세점에서 시백은 열심히 술을 촬영했다. 가격을 비교하기 위해서였다. 그 모습이 재밌었다. 그러나 엉뚱한 이유로 결국 한 병도 사지 못했다는... 모스크바에서 말라가로 가는 비행기, 기내식으로 제공하는 와인을 한잔했다. 그런데 화장실에 가서 머리 높이만큼 위에 있는 잠금장치를 보지 못하고 아래쪽에 엉뚱한 고리를 거는 실수를 해 문을 잠그지 않았다. 아마도 약간 취기가 돌아 어리바리한 행동을 한 듯했다. 불일을 마친 다음 손을 씻고 옷매무새를 만질 때 문을 벌컥 연 나이 지긋한 외국인 남자를 깜짝 놀라게 하고 말았다. 나오자마자 사과를 했는데 그의 당황해 하는 표정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약간의 소동(?)을 일으키며 말라가에 무사히 도착했다.



말라가는 피카소의 고향이라고 한다. 출발 도시를 말라가로 택한 것은 공항이 있고 지중해에

서 해수욕을 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말라가 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기다리는 도중 20대로 보이는 한국 여성 두 명과 같이 줄을 서게 되었다. 그중 한 명은 한국에서 모스크바로 갈 때 내 뒷자리에 앉았고, 모스크바에서 스페인으로 오는 비행기 안 화장실에서 함께 기다리기도 했던 사람이라 반가웠다. 그녀는 스페인어를 배우기 위해 유학을 왔다고 오늘이 첫날이라고 했다. 그녀의 스페인에서의 첫날에 나도 함께한 기분이라 덩달아 마음이 설레었다. 밤 11시에 도착한 공항에서 우리를 맞아주신 택시 기사는 여성이었다. 신 나는 음악이 흐르는 택시를 멋있게 운전해 호텔 앞에 내려주었다. 트렁크에서 짐을 꺼낼 때 도와주려고 하자 괜찮다고 하며 짐을 번쩍 들어내는 모습이 멋져 보였다.

시내와 한참 떨어진, 아름다운 분수대와 작은 뜰이 있는 오래된 호텔이었다. 뒤뜰에 있는 작은 오렌지나무들을 보며 어렸을 적 좋아했던 소설 『나의 라임오렌지나무』의 밍기뉴를 떠올렸다. 나름 4성급이지만 주변에는 오렌지 가공 공장을 비롯한 공장들이 주로 있고 외진 도롯가에 위치한 탓에 호텔엔 차를 가지고 오는 손님들이 대부분이었다. 시내버스를 타고 25분 정도 가야 해변이 있는 말라가 시내가 나왔다.

다음 날 말라가 해변에서 해수욕을 했다. 시백은 내내 누운 자세로 눈을 감은 채 물 위에 떠 있었다. 사람들은 편안하고 자유롭게 한낮을 즐기는 모습이었다. 일광욕을 하며 독서를 하는 이들도 보였다. 간혹 비키니 상의를 벗은 채 일광욕을 하는 여성들도 있었는데 누구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다. 자유를 만끽하는 듯한 분위기가 부러웠다.

시백이 알아본 전기자전거 대여점-한국인이 운

영하는 호스탈과 연계하여 소개를 받았다고 하면 할인도 해줬다-에서 자전거를 빌려 해변을 달렸다. 기분이 상쾌했다. 쿨해 보이는 여성 사장님 말씀대로 정말 멋진 경험이었다. 인도가 넓고 곳곳에 자전거 도로가 있어 많은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

돌아오는 버스 안, 나는 몸이 녹초가 되어 헤드뱅잉을 하며 즐겼다. 시백은 정거장을 놓칠까 봐 양손에 패드를 올려놓고 열심히 실시간 위치를 안내해주는 지도 어플을 보고 있었다. 호텔이 있는 정거장에 내렸다. 어두운 대로를 걸어오던 중, 저 멀리서 불빛이 번쩍거리고 음악이 들렸다. 주변은 다 공장이고 인기척이 전혀 없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약간 무섭기도 했지만, 무엇에 홀린 듯 빛과 음악 소리를 따라 걸어갔다. 가까이 다가가자



뿔밖에도 마을 축제를 하고 있었다. 그것도 초등 학교 학예회! 아이들이 주인공인 축제였다. 현란한 불빛은 출장 놀이기구들이 내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범퍼카를 비롯한 여러 놀이기구를 타면서 신나게 놀고 있었다. 한 편에 설치해놓은 무대에서는 아이들이 공연을 하고 어른들은 맥주를 마시며 함께 어울리는 모습이였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 초등학교 또래의 아이들과 좀 더 어린 동생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학예회. 아이들이 주인공인 파티였다. 스페인 국민들은 특히 아이들을 많이 사랑한다는 문구를 책에서 본 적이 있다. 그 마음이 느껴졌고, 동시에 세월호 사건을 생각했다.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자유롭게 삶을 즐기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어른들이었다면... 그렇게 많은 아이가 헛되이 희생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거란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 세비야

말라가에서 세비야로 출발하는 열차. 짐칸에 올랐던 가방을 잠깐 내렸다. 짐을 꺼내고 혼자 힘으로 다시 올리려다가 힘에 부쳐서 앉아 있던 시백에게 SOS를 청하는 순간, 일어서는 그의 어깨로 그만 가방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일시에 터져 나온 사람들의 "아이쿠!" 탄식과 함께 작은 웃음소리에 나도 시백도 멧쩍게 웃고 말았다.

세비야에 도착하자 한국과는 또 다른 강력한 햇빛이 맞아주었다. 시에스타 시간대에 도착한 도시는 너무도 조용해서 건물들도 잠든 듯했다. 버스 승차장 위치를 문자 친절하게 알려준 어느 가족과 잘못 탄 버스에서 만난 한국인, 한국말을 꽤 잘하는 그의 스페인 친구가 기억에 남는다. 3번 버스를 타고서는 기사님께 이 버스가 A3번 버스가 맞느냐며 엉뚱한 질문을 했던 나, 일시에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 민망하고 부끄럽기도 한 상황이었다. 그때 한 스페인 소녀가 다가와 "어디 가고 싶어?" 한국말로 물어 너무 놀랍고 반가웠다.

말라가 해변에서 만면에 웃음을 띠고 물에 둥둥



떠 있었던 시백은 감기에 걸리고 말았다. 뜨거운 햇볕 아래 한참을 걸어서 도착한 호텔, 더위 먹은 우리에게(혹시 그리워질까 봐 챙겼던) 고추장, 멸치볶음, 참치는 큰 위로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보데가 산타크루즈'라는 타파스 음식점에 갔다(* 타파스(tapas)는 식욕을 돋우어 주는 애피타이저의 일종으로서 스페인 요리에서 간식의 일종으로도 먹는다. 올리브나 치즈와 함께

차게 먹거나 오징어 등 해산물과 튀겨서 먹기도 한다. - 출처: 위키백과). 론니플래닛에도 소개된 음식점인데 요리사를 비롯해 서빙하는 사람 모두가 남자였다. 요리사가 음식을 준비하며 맥주를 조금씩 마시는 모습을 봤다. 내가 시금치와 치즈, 튀긴 오징어를 재료로 한 타파스와 함께 '크루즈캠프' 맥주를 주문하자 서빙하던 이가 "Oh! Cruzcampo!" 하며 장난스러운 웃음을 짓고 반갑게 악수를 청했다. 그 웃음만큼이나 맥주가 시원하고 맛있었다. 우리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옆 테이블에서 아이들과 샌드위치를 먹던 독일 가족의 아버지도 맥주 한 잔을 주문했다. 음식을 먹고 나서 가격을 문자 테이블에 분필로 가격을 적는 모습도 재밌고 따스함을 주었다.

세비야 대성당과 스페인 광장은 아름다웠고 저녁 무렵 플라멩코 박물관에서 본 열정적인 공연은 훌륭했다. 남녀 무용수와 가수, 기타리스트 네 명의 예술가가 단 한 회의 플라멩코 공연을 위해서 온몸을 불태우는 뜨거움과 열정이 느껴졌다.

밤이 되어 숙소로 돌아오던 길, 주차된 차 아래에서 새끼 나비가 울고 있었다. 마트에서 물과 주전부리를 조금 사면서 집에 두고 온 나비들 선물로 줄 간식도 함께 챙겼었다. 새끼 나비에게 간식을 꺼내 주었다.

♪ 그라나다

스페인의 버스는 대부분이 저상버스였다. 그라나다에 도착해 주된 대중교통인 버스를 타고 알함브라 궁전 가까이에 있는 베네치아 호스탈로 향했다. 주인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셨다. 이번 여



다. 가격도 저렴하고 맛이 있어 타파스 문화에 반할 정도였다. 시백이 그 매력에 빠져 타파스 맛집을 검색, 저녁을 먹으러 두 곳의 식당을 찾아가기도 했다. 정작 내가 반한 이유는(스페인의 저녁 식사 시간이 보통 8시 이후이고 우리나라처럼 술을 즐기는 문화라는 점도 있지만) 밤인데도 식당이나 바에 가족이 많았던 점이다. 아이들은 물론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나온 가족도 있었다. 그러나 다는 여행자들을 위한 도시였다. 밤늦은 시간에도 거리는 아이스크림 가게와 타파스 음식점, 바에서 나오는 불빛으로 환하고, 사람들로 가득했다.

알함브라 궁전으로 걸어 올라가는 야트막한 산길은 강원도 월정사 전나무길을 생각나게 했다. 우리나라와 멀리 떨어져 있는 스페인이었지만 왠지 정겹고 친숙한 마음이었다. 그리나도의 마지막 이슬람 왕국인 나스르 왕조가 살았던 궁전 알함브라의 곳곳에 있는 섬세하고 아름다운 문양의 벽들이 인상적이었다. 알카자바에 올라 시에라네바다 산맥을 보며 시야가 확 트이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나다 투어 버스를 탔을 때는 한국말 음성 가이드가 있어서 반가웠다. 버스를 타고 이슬람교도들의 거주지였고 아직 그 문화가 많이 남아 있는 알바이신 지구로 향했다. 하얀 벽의 아기자기한 집들, 아이들의 얼굴, peace라고 그려진 그래피티도 인상적이었다. 높고 꼬불꼬불한 언덕길을 달려 성니콜라스 교회 전망대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과 함께 바라본 알함브라 궁전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 바르셀로나

에어비앤비(airbnb)를 통해 바르셀로나 호아닉

행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웠던 숙소이다. 창밖으로 오래된 주택과 나무들이 보이고 이 길의 주인인 작은 나비들도 만났다. 시간마다 울리던 성당의 종소리, 해 질 무렵 어스름한 하늘빛, 열린 창으로 들락거리던 시원한 바람. 꿈을 꾸는 듯했다.

그리나다는 안달루시아 지방 중 타파스 문화가 남아 있는 곳이다. 음식점에서 음료수 한 잔을 주문해도 무조건 타파스를 한 접시 준다. 타파스 세 접시면 두 사람의 저녁 식사가 될 정도의 양이

역 주변의 아파트를 사흘간 임대했다. 그곳에서 아파트 주인인 '라울'을 만났다. 약속 시간을 정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원활하게 안 되어 30분 늦게 아파트 입구에 나타난 그가 인사를 나누고 가장 먼저 한 말은 "Don't worry!" 키가 훤히하고 잘생긴 정장 차림의 스페인 아저씨 라울은 아파트 이곳저곳을 설명하며 미소와 함께 역시 걱정 말라고 말해주곤 집 열쇠를 맡기고 떠났다. 6층 건물의 맨 꼭대기, 테라스가 있는 독립된 공간이었다. 이곳에서 사흘간 자유롭게 지낼 수 있다는 것에 마음이 놓였다. 에어비앤비에 예쁜 숙소가 많았지만, 이 아파트를 택했던 이유는 우선 가격대가 적당했다. 주인장 라울(얼굴은 모르지만)의 이름자에 왠지 믿음이 갔다. ^^ 시백이 바랐던 테라스도 있고 사진에서 본 아파트 내부 모습에서 벽에 걸려 있던 그림이 마음에 들었다. 내가 생각해도 그림이 마음에 들었다는 건 좀 특이한 이유인 거 같다.

첫날밤 10시 즈음, 밖에서 흥겨운 음악 소리가 크게 들렸다. 도심과 가깝지만 조용하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얘기했던 라울이 생각나 웃음이 났다. 호기심에 밖으로 나가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니 아르헨티나 거리에서 열린 축제였다. 작은 무대에서 젊은 밴드가 노래하고 남녀노소 자유롭게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시백과 용기를 내어 술을 주문하고 살짝 사람들 사이로 들어갔다. 흥겨운 분위기였다. 음악은 새벽 2시까지 계속되었지만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 소박하고 즐거운 축제는 둘째, 셋째 날까지 계속되었다. 축제를 즐기는 스페인



사람들의 일상이 여유로워 보였다. 시백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 마음을 빼앗겨 세 시간가량 성당의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가우디의 건축 철학이 담겨 있는, 그가 죽는 날까지 설계와 건축에 헌신을 다한 성당의 모습은 신비로웠다. 가우디의 자연과 인간, 신에 대한 사랑이 후세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듯했다(* '그는 자연의 모든 것을 존중하며 이해했다. 하늘과 구름, 물과 바람, 나무와 식물, 동물과 곤충, 산과 바위 등 여러 가지를 보며 이를 통해서 건축언어에 접목해 갔다.' - 출처: <http://dakangel77.com.ne.kr/fish.html>). 성당 바로



옆에는 당시 노동자들의 아이들이 다녔던 학교가 있었다. 이 학교 역시 성당을 짓기 시작할 무렵 가우디가 설계하고 지었다고 한다. 교육에 대한 그의 고민과 정성이 느껴져 인상 깊었던 공간이었다.

바르셀로나에서의 마지막 날, 오랜 역사를 가진 타파스집 '바셀타'에 갔다. 신선한 해산물 타파스와 함께 백포도주를 마셨다. 스페인에서 먹은 음식 중에 가장 맛있었다. 론니플래닛에서 와인이 유명하다는 내용을 봤었기에, 웨이터에게 추천하고 싶은 와인으로 하나 주문했다. 그가 한 잔이 아닌 한 병을 가져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마개를 따서 한 잔씩 따라주는 바람에 살짝 놀랐다. 시백과 함께 원 없이 낫술을 마셨다. 마지막 남은 두 잔을 옆 테이블에 앉은 브라질 커플에게 권했다. 그들은 유럽이 두 번째이고 둘 다 직업이 의사라고 했다. 유럽 물가가 비싸서 여행을 자주 하기 힘들다는 남자에게 시백이 브라질 월드컵을 얘기하자 자기는 월드컵을 여는 것이 싫다고 했다. 문득 브라질 월드컵 경기장을 무리하게 짓는 과정에서 죽은 노동자들, 평창 동계 올림픽을 준비하며 단 사흘간의 활강 스키 경기를 위해 500년 된 가리양산 원시림을 벌목하려 하는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상황이 떠올랐다. 아마 그도 나와 같은 생각에서 싫다고 말한 게 아니었을까.

낫술을 마시고 바르셀로나 해변에 가서 시백은 수영을 하고 나는 모래사장에 누워 코를 골며 낮잠을 잤다. 해변에서 지하철역으로 걸어오는 길에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지나게 되었다. 노란색 건물에 뽀뽀하게 들어찬 집들. 집집마다 베란다엔 빨래가 걸려 있었다. 한국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의 삶을 잠깐 엿본 듯했다. 얇은 바람에 빨래들이 훑날리는 광경이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을 떠올리게 해 가슴이 시렸다.

한국과 닮은, 그리운 스페인. 5년 안에 다시 가보리라 다짐한다. 짧지만 뜨겁고 자유로웠던 여행! 지친 일상에 잔잔한 에너지가 되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 여행 동안 시백과 햇의 뒤통을 책임져 준 공장 사람들, 우리 집 나비들을 보살펴 준 동생 이니, 공장에 사는 코쿠와 쿠리, 아가 나비들의 밥을 열심히 챙겨준 ○○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

우리, 이래서 바쁘다!

— 장애인문화예술판 10월 내지 11월 일정 안내 —

문예판 안수

10월 17일, 금 마로니에 공원
(오전 10시~오후 4시) (오전 10시~오후 4시)

날에
빈곤이 없어야 행복해 빈곤철폐 퍼레이드·빈곤성토회·당차별이 없어야 행복해 마로니에 공원에서 펼쳐지는 "모두의 인권, 모두의 마음"

저녁엔
인권이 있어서 행복해 인권연극제 개막식
노들이 있어서 행복해 노란들판의 꿈과 깨가 펼쳐지는 "쇼미더노들"

주최 : 노란들판의꿈 후원위원회 (시·도·군·구·자치단체, 노동조합·시민단체, 사회적기업·노동조합, 장애인단체·재단, 장애인문화예술 진, 장애인기업협동조합) 판
후원 : 서울교육청 / 노들 후원재단(연대단체)
문의 : 02)766-9101 / 9103 / 후원계좌 : 신한 100-025-31857 노란들판의꿈(계좌번호)

원래는 내가 연출을 맡아서 준비하고 있는 공연에 대한 설을 풀어볼까 했으나 내 작품이 어떤 것인지 나도 잘 알 수가 없는 혼돈의 카오스를 맞이하여 도저히 그 주제로 쓸 수가 없었다. (이게 다 환절기 비염 때문이다.) 그러나 마감은 촉박해져오고 팬스레 스트레스도 받아보고 누웠다가 졸았다가 서 있다가 앉았다가 커피도 한 잔 마셨다가 문득 어떤 한 생각이 광명처럼 떠오른 것이었다!!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이번엔 뭘 때 문에 그렇게 바쁘지?’를 쓰자!”

그래서 느닷없이 써보는 <장애인문화예술판 10월 내지 11월 일정 안내> 되시겠다. 여기에 나오는 일정들 사이사이에 우리는 바쁘겠지만 그 빈칸들은 보이는 일정들을 위한 보이지 않는 준비기간으로 봐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안내문은 과감히 2개 주는 뛰어넘기고 10월 셋째 주부터 시작된다.

10월 셋째 주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 10/12(일) | 10/13(월) | 10/14(화) | 10/15(수) | 10/16(목) | 10/17(금) | 10/18(토) |
|----------|---|----------|----------|----------|----------|----------|
| | 장애인미디어학교 '오감만족 소통영상' 전시회 (월요일 오후 5시 디너쇼) | | | | 노란들판의 꿈 | |

1. 장애인미디어학교 '오감만족 소통영상' 전시회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이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을 사진, 영상, 블로그를 통해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주는 장애인 미디어교육을 4월 말부터 진행해왔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수많은 DSLR 카메라와 편집용 고성능 노트북을 임대하였고, 매주 화요일에 모여 사진 촬영 기술을 배우고 편집도 해봤다. 가끔 어린이대공원이나 서울창포원 등에 출사를 나가기도 했다. 인터넷에 블로그를 개설하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이 한번쯤은 들어보직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맛보기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것들을 마냥 배우기만 하고 끝내기엔 아쉬운 법. 책 하나 배우면 책거리를 하듯이 우리도 뭔가 백적지근하게 마무리하려고 전시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장소는 하늘공원! 응?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상암동의 그 하늘공원이 아니라. 서울 한복판인 을지로에 있다는데 알아보니 2호선 을지로입구역 5,6번 출구 옆에 있는 SK네트웍스 사옥 10층에 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오라는 얘기다. 특히 월요일인 10월 13일은 오후 5시에 디너쇼를 개최한다고 하니 많이들 찾아주시라. 우리는 그럼 다과와 음식을 풍성히 차려놓고 기다릴 테니.

2. 노란들판의 꿈



《노란들판의 꿈》이야 매년 하는 것이니까 뭐 그렇고 그런 것이겠지 생각 하는 순간 변수가 일어나는 법이다. 올해는 특히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 10주년을 맞아 빈곤사회연대 동지들과 함께할 예정이다. 게다가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인권연극제가 개막식을 앞두고 있어 '노란들판의 꿈'은 이 셋이서 함께 마로니에공원을 축제의 장으로 만든다는 그림을 그려보고 있다. 장애인문화예술관은 이번 인권연극제에 참가한 단체이기도 하지만 노들의 구성원으로서 '노란들판의 꿈'에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아, 참고로 연극은 아니다. 이번 '노란들판의 꿈'에서 우리는 사물놀이 한 마당을 벌일 것이다. 북, 장구, 팽과리, 징. 이 네 악기가 모여 사물(四物)이 되듯 노들의 구성원으로서 노란들판의 꿈을 연주해버릴 것이다.

10월 다섯째 주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 안내는 그리고 또 한 주를 건너뛰어 바로 마지막 주로 향한다.

| 10/26(일) | 10/27(월) | 10/28(화) | 10/29(수) | 10/30(목) | 10/31(금) | 11/1(토) |
|----------|----------|----------|----------|--------------------------------------|----------|---------|
| | | | | 자립예술 프로젝트 '세상의 중심은 나' 연극 <love♡love> | | |

3. 장애여성 자립예술 프로젝트 '세상의 중심은 나' 연극 <love♡love>

장애여성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창작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독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북돋아주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올해부터 3년간 진행될 장기 프로젝트이다. 대망의 첫 시작! 올해에는 나만의 시각으로 새롭게 재창조하는 창작연극을 통해 장애여성들이 진정한 예술가로 탄생하게 되었다.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총 30회에 걸친 프로그램 동안 장애여성들은 매주 목요일 저녁에 모여 역사 속, 신화 속 다양한 여성 인물들을 통해 '여성'의 삶을 비춰보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을 통해 주체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표현하는 '예술가'로 일어서고,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자립할 기회를 얻고자 노력했다.

이번 공연 <love♡love>는 바로 그러한 과정들을 일목요연하게 담아놓은 결과물이다. 이번 공연의 슬로건도 아주 발칙하기 짝이 없다. '중증장애여성들의 솔직 발랄 통쾌한 사랑이야기!', '나도 사랑하고 싶다.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엄마도 되고 싶다.' 아직도 장애인이 시설에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본다면 놀라 뒤집어질 소리다. ㅎㅎ

공연은 '충무아트홀 중극장 블랙'에서 올린다. 2호선, 6호선 환승역인 신당역 9번 출구 근처에 있으니 나름 역세권이다. 이 또한 많이들 보시기를!

11월 첫째 주 (11월 2일부터 8일까지)

| 11/2(일) | 11/3(월) | 11/4(화) | 11/5(수) | 11/6(목) | 11/7(금) | 11/8(토) |
|---------|---------|---------|---------|-------------------------------|---------|---------|
| | | | | 함께하는 예술프로젝트 <뮤지컬은 사랑을 타고> 상영회 | | |

4. 함께하는 예술프로젝트 '뮤지컬은 영화를 타고' <뮤지컬은 사랑을 타고> 상영회

이것 때문에 요즘 장애인문화예술관 전체가 들썩들썩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작년에도 영화 제작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2개의 작품을 만들어 그 중 하나를 올해 4월에는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에 출품도 하였다.

“가슴 속에 열정을 가득 품고 꿈을 향해 도전해가는 뮤지컬 배우 지망생들! 뮤지컬 영화배우가 되기 위해 모인 우리의 인생 이야기가 밝고 유쾌하게 펼쳐진다. <뮤지컬은 사랑을 타고>는 사회에서 주류가 아닌 비주류로 살아왔던 사람들의 솔직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울고 웃으며 자신을 노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자체가 인생이고 드라마이다. 꿈과 인생, 사랑이야기, 가장 슬프고 행복했던 순간 등 삶의 다양한 이야기가 뮤지컬 노래에 담겨진다. 온갖 역경 속에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의 열정! 그 순수한 마음이 노래와 춤 속에 녹아 영상으로 따뜻하게 표현된다.”

그래서 올해는 '욕심을 좀 더 부려서 다큐멘터리 영화가 아닌 극영화 한번 찍어보자!'는 마음으로 영화를 제작하기로 했는데 보통의 극영화도 아니고 '뮤지컬 영화라니!?' 우리도 '맘마미아' 찍는 거야?

그렇게 올해 5월 말부터 10월까지 나이, 성별, 장애와 상관없이 뮤지컬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매주 금요일에 보컬 발성법과 영상 연기를 배웠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스토리텔링 작업을 통해 이야기를 만들고 솔직한 자신의 이야기를 뮤지컬 영화 안에 녹여내었다. 판의 상근자들은 감독님을 섭외하고 촬영을 위해 로케이션을 섭외하고 장비를 구하는 등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요즘은 촬영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휴일과 주말에도 촬영장에 나가고 있으니 그 고생 몰라주면 매우 섭섭할 테다.

상영회는 11월 6일 목요일 저녁 7시에 아리랑시네미디어센터 3관 독립영화전용관에서 진행된다.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6번 출구에서 정릉동 방향으로 올라가면 나오니 이 글을 보고 계신 독자여러분! 꼭 오시는 걸로?

11월 둘째 주 (11월 9일부터 15일까지)

| 11/9(일) | 11/10(월) | 11/11(화) | 11/12(수) | 11/13(목) | 11/14(금) | 11/15(토) |
|---------------------|----------|----------|----------|----------|----------|----------|
| 제1회 인권연극제 참가공연 <추신> | | | | | | |

5. 인권연극제 참가공연 <추신>

사실 내가 이래 오지랖을 떠는 것은 다 이 공연 때문이다. 무려…… 내가 연출이다. 하하… 긴장이 이만저만 그만인 아니다. 내가 이전에 '노들바람'에 글을 쓰면서 "남들이 한 것을 흉내 내는 것을 벗어나 '판'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하지 않겠냐고."라는 망발을 서슴없이 내뱉었는데 그 반향이 내 마음에 계속 충을 울리고 있다. 텅- 텅-

아니 새로운 것이라 함은 기존에 없는 것이니 어떤 것인지 설명하라고 하면 어찌 설명하리오. 나도 잘 모르겠는데 말이지. 그러나 자존심, 다른 이름으로는 '허세'라는 그것이 기어이 일을 치고 말았으니 그 수습 또한 내 몫이라. 그래서 연극이 아닌 것들을 찾아본다. 영화도 이전보다 많이 보고, 언어보다 몸이 우선시되는 공연도 많이 찾아보았다. '판'의 명배우였으나 현재 광주광역시민이 된 '주은아' 누님이 시민참여형 프로젝트인 '초생경극(超生景劇) <무·舞·無·言>'에 참여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연을 보러 광주까지 찾아가기도 했다. 최근에는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과 재개발로 가게를 잃은 임차상인들이 직접 무대 위에 선 <법 앞에서>라는 공연 또한 보고 왔다. 그것들을 통해 내가 대강 정리한 바로는 이러한 공연들은 주제를 가지고 별다른 이야기로 꾸미지 아니하고 주제 자체에 집요하게 천착을 해낸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번 공연의 주제로 삼은 것은 미추(美醜), 즉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들에 대한 것이다. 이를 배우들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연습의 전부이다. 발성, 발음, 호흡, 체조 등은 연습하지 않는다. 나는 주제와 관련되어 내가 생

각한 것을 전달하면 배우들은 그것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한다. 그리고 배우들은 나름대로 이야기를 만들고 나는 그것들이 주제에 어떻게 결합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한다. 평가를 내리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러지 않고는 공연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내 평가를 내리고 다시 만들어오라는 미션을 던진다. 그러면 배우는 다시 만들어오고 그게 괜찮으면 좋다고 평가를 내리지만, 나는 그것이 전체 주제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집에 돌아가는 길에 뒤늦게 깨닫는다. 배우들은 뭔가 더 그럴듯한 것(예를 들어 '대본')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난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말한다. 4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러고 있고 이제 공연은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어찌 되든 공연은 올라갈 것이다. 어찌 나올지는 나조차 장담할 수 없지만 봐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공연은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총 4회 상연된다. 평일은 8시, 토요일은 4시. 공연장은 대학로 '소리아트홀'이다. 무려 '대학로'다. 그곳에서 새로운 관객들을 맞이한다. 얼마나 까칠지 벌써부터 두근거린다.

• 정리하며



우리의 일정은 대략 이 정도이다. 물론 이후에는 그동안 치른 일들의 뒤치다꺼리다. 세상에는 "이 정도는 바쁜 축에도 못 겨. 뭐가 그리 바쁘다고 엄살인가?"

...라고 말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어허, 창작의 고통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다. 설령설령하는 것같이 보여도 세상의 모든 일처럼 우리의 일도 소주 몇 잔과 담배 몇 개비와 커피 몇 잔의 고민이 담겨있다. 그러니까 힘들단 이야기다. 우리 힘내라고 공연 많이들 보러 와주시라.

도움반에서 드리는 편지

김혜옥

김혜옥. 노들야학 창립 멤버. 3대, 5대 교사대표를 지냈으며 초등 특수교사입니다.
지난 3월, 전교 선생님들께 뿌린 메시지를 조금 수정했습니다. 이런 지면에 글이 실릴 줄은 모르고 얼기설기 쓴 글이니 부디 감안하고 읽어주세요.^^

목련꽃 봉오리 맺힌 걸 보니 봄이 오긴 오나봅니다.

지난 주말에는 「노예 12년」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노예제를 다룬 영화인데 인간의 자유 의지와 존엄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한여름에도 솜바지를 입고 바지 속에서 다리가 썩고 있던 사람. 침대에 팔다리를 묶인 채 한 사람이 각목으로 맞아 온몸에 시퍼렇게 피멍이 든 사람... 양념 안 된 반찬과 시래깃국, 10년도 더 된 참치캔. 오줌을 버려줄 사람이 없어 아무도 물을 주지 않았고... 방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고, 도망치다 붙들려온 사람들이 개처럼 두들겨 맞았다. 한 달에 한 명씩 죽어나갔다. 하나님,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여기서 나가야 한다. 늦은 밤, 여자는 모두가 잠자리에 들기를 기다려 무릎으로 정신없이 기기 시작했다. 날이 하얗게 밝아 올 무렵, 온 몸이 생채기에서 피가 흐르고... 그녀는 그렇게 시설을 탈출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 이야기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10위 안에 든다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바로 장애인생활시설에서요. 그리고 지역사회에 살아보고자 목숨을 걸고 탈출한 사람들의 이야기이지요.

왜 그들은 범죄자도 아니고 몹쓸 돌림병에 걸린 사람들도 아닌데 우리와 같이 살지 못하고 분리되어 살아야 했을까요? 왜 자신의 사회와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해야 했을까요? 누가 그들을 시설에 가두었을까요? 누가 그들을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도 유지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가게 만들었을까요?

혹시... (우리가) 학교에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그들을 학교 바깥의 시설로 몰아넣은 것 아닐까요?

편의시설도 없고 보조할 사람이 없으니 사회에서도 같이 살 수 없다며 (우리가) 그들을 시설로 넣은 것 아닐까요?

올해 도움반에 몇 명의 친구가 더 들어왔습니다.

최근 발달장애아를 둔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자살하는 뉴스가 많아 마음이 너무나 아픈데, 이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힘차게 일반학교에 발걸음을 내딛는 부모님들. 일반학교에 보내놓고 하루 하루 마음 졸이는 모습이지만, 새삼 참 고맙고 힘이 되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권리실현의 주체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애가 있으니 불쌍해서가 아니라, 부모 조직의 입김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권리로 이해받았으면 합니다. 걸보기엔 똑같은 밥 한 그릇일지라도, 걸보기엔 똑같은 한 걸음일지라도 그것이 시혜나 동정이 아닌 권리로 존중 받는다는 것은 분명 의미가 다르겠지요.

선진국처럼 공립일반학교에 통합된 장애아 한 명에 특수교사, 보조원,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가 달라붙는 복지 시스템은 아니어도 우리나라도 조금씩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결국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하겠다는 의지겠지요.

흔히들 장애아의 기적을 말할 때 헬렌 켈러와 그녀를 가르친 애니 설리번 선생님을 얘기하지요. 하지만

제가 열심히 가르쳐서 말을 못하던 아이가 말을 잘할 수 있게 되고 글을 못 읽던 아이가 글을 읽게 되는 기적을 이룬다 해도 그 아이가 자라서 직업도 갖지 못하고 다시 시설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 기적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기적을 일궈내는 사람들은 바로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실에서의 통합이 '사회적 통합'의 기초가 될 것이니까요. 글을 잘 못 읽더라도 말을 잘 하지 못 하더라도 잘 걸어 다니지 못 하더라도 장애인이 생활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처럼 지역사회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또 나중에 커서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어서 소중한 일상을 같이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결국 노예제가 폐지되었듯, 결국 여성이 참정권을 가지게 되었듯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 저는 역사는 그렇게 진보해나갈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언젠가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어른이 되는 세대에는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 사회적 약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능력'이 기업에서 인재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라고 합니다. 실제 구글 같은 회사에서는 장애인도 많이 채용하고 있고 그 장애인들과 같이 협력하여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지닌 사람을 성적이나 학벌이 뛰어난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다음반 친구들이 ○○초 친구들에게 그런 덕목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존재가 되길 바라봅니다.

다소 불편한 내용이 있는 긴 글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 ○○초 학습도움반 김혜옥 드림 -

※101호 인쇄 사고로 한 번 더 실습니다.

온몸으로 함께 울고 함께 기다리는 일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노들야학 은전

대한문에서 출발한 버스는 다섯 시간 만에 진도에 들어선 후에도 한참을 더 달려서야 팽목항에 닿았다. 한때 항구를 가득 메웠던 천막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간 후 행해진 그곳은 짙은 해무로 가득 차 있었다. 찰박거리는 바닷물 위에서 끼익끼익 기분 나쁜 금속성의 소리를 내는 빈 여객선과 그 옆에 색색의 과일로 차려진 제사상의 조합이 이 적막한 항구가 연일 뉴스를 도배했던 그 아비규환의 현장임을 서늘하게 보여준다. 방파제에 노란 리본이 빼곡하다. 배를 타고 한참 더 나가야 한다는 사고 해역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사람들은 방파제 끝까지 나가 그들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고 또 불렀을 것이다.

“엄마, 아빠, 여보, 내 새끼야. 보고 싶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이제 그만 돌아와다오.
내가 엄마의 아들이어서 행복했어요. 네가 나의 아들이어서 고마웠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은 자신의 가슴을 도려내어 그 난간에 매달아 놓았다. 멀리 시신을 수습하기 위한 천막이 외따로 떨어져 있다. 6월 8일 이후 아직 저 천막을 거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이 없다. 열두 명. 아직 열두 명이 저 검은 바닷속에 갇혀 있다. 이제 성별조차 가리기 힘들 만큼 변한 시신은 가족들에게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한다. 더딘 구조 작업에 가슴을 쥐어뜯던 유족들이 “차가운 바다에서 죽어간 내 자식 한 번은 품어주고 보내게 해달라”던 비명 같은 요구도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다. 방파제의 끝에 서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마음속으로 부른다.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 그저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따라 불려본다. 그들이 하루라도 빨리 잠수사의 손을 잡고 나와 가족의 품으로 인도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악몽 같은 장례가 어서 끝나기를.

나는 비명에 죽은 자식의 영정을 끌어안은 부모의 심정은 모른다. 하지만 그 부모의 죽지 않은 딸의 마음을 안다. 꿈인 것 같아서 어서 깨어나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꿈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불쑥불쑥 가슴이 내려앉고 눈물이 터지기를 반복하는 상실의 시간. 8년 전 단 며칠이었으나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

은 고통의 시간. **내 언니의 장례였다.**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묵묵히 끌고 나갔던 언니와 형부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친정으로 가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순식간에 세상을 떠났다. 우리 가족은 장례를 치르는 내내 상복은커녕 검은 옷조차 제대로 갖춰 입지 않았다. 이미 그녀가 죽어 사라졌는데 그때워 의식이 다 무언가 싶기도 했지만 우리는 갑작스런 가족의 죽음에 대처하는 법을 몰랐고 무엇보다 몹시 피곤했다.

하도 울어서 통통 부은 눈은 뜨고 있는 것만도 힘들었다. 어차피 꿈이 아니라면 어서 이 장례가 끝나기만을 바랐다. 장례식은 정말 꿈결 같아서 제대로 기억나는 것이 없지만 장례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 안에 흐르던 그 무거운 정적만은 생생하게 기억난다. 우리는 각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쓰러지듯 잠을 잤다. 3일 만에 자는 잠은 슬프고 달았다.

다섯 살 위 언니와 나 사이에는 놀랍도록 추억이 없어서 나는 그녀를 떠올릴 때마다 '이래도 될까' 싶을 만큼 아프지 않았다. 온몸이 마취된 것처럼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데도 나는 **불쑥 혼자 울었다.** 피와 살 어딘가에 묻혀 있다가 불쑥불쑥 흘러나오는 존재. 나는 그것이 혈육인가 보다, 생각했다.

마취가 풀린 후 통증은 엉뚱한 곳에서 찾아왔다. 누군가의 죽음이 그저 그날 오전에 처리해야 할 일거리에 불과했던 영구차 기사가 언니의 유해를 "얼른 뿌리고 오라"며 통명스럽게 대했던 것이, 그래서 한 인간의 마지막 흔적을 고작 상조회사의 기사가 아무 의미 없이 가리킨 야산에 뿌려 없앤 것이, 그리고 그녀의 32년 삶을 단숨에 압사시킨 차주의 보험사가 그 삶을 제대로 정산했는지 따져 묻지 않은 것이 두고두고 가슴 한 편을 저리게 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때는 채 식지도 않은 주검으로 돌아온 딸의 얼굴을 만지며 "아직 따뜻한데요. 살아 있는 거 같은데요. 안 죽은 거 아닙니까?"라고 의사를 붙들고 물었다는 아버지가 떠오를 때다. 혹시라도 의사가 너무 일찍 자신의 딸을 포기한 게 아닌지 그 순간 아버지는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녀가 태어났을 때 세계 쥐면 부서질 것처럼 연약한 그 생명을 손에 안아본 후 아버지는 비로소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다고 했다. 가진 것도 배운 것도 비밀 언덕도 없어 마음 둘 곳 없었던 가난했던 남자에게 그녀는 뿌리 같은 존재였다. 그녀가 떠난 후 '자식이 몇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뿌리가 잘려나간 곳에 통증을 느낄 아버지를 생각하면 나는 마음이 칼로 베이는 것처럼 쓰러다. 방파제에 매달린 이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본다. 모두 얼마나 귀한 존재들일까. 지금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을까. 배 안에 갇힌 사람들은 손을 뻗고 있다고 하는데 어둠 속에서 그 손을 잡아줄 누군가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까. 새끼들의 손을 잡아주지 못해 까맣게 돌이 되어가고 있는 가족들의 고통을 지켜보는 우리는 무얼 해야 할까. 구조작업을 하는 잠수사에게 "승무원복 입은 우리 아들, (단원고) 학생들과 구분하지 말고 같이 구조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고 적힌 쪽지를 건네며 수도 없이 머리를 조아렸다는 어느 부모의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가족을 잃은 슬픔도 모자라 무뢰한들에게 난도질당한 외상으로 피를 철철 흘리는 그들을

보며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

함께 울고 함께 기다리는 것,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지금 우리가 온몸으로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이 아닌가. 그런데 곡을 할 기력조차 남아 있지 않은 사람들의 옆에서 축구공을 던져 올리고 요란한 응원가를 틀어 광장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세력들이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없다. **진흙탕 같았던 선거 유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성실하게 세월호를 지워가고 있다.**

혈육의 죽음도 있는 나약한 인간이 추억 한 가닥 없는 이들의 죽음을 잊지 않을 도리가 없다. 바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분투하다 보면 잊지 않겠다는 말을 하는 것조차 어느새 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 야만적인 세상에 그저 무력한 인간으로 살아감이 한없이 슬픈 날, 그 마음 그대로 뺨목항에 가보시라. 마음이란 걸 가진 인간이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다. 간절한 마음으로 바닷속에 가라앉은 세월호의 선체로 들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열두 명의 손을 잡아주시라. 너무 많이 변한 그들의 얼굴에 놀라 고개 돌리지 말고 두 눈 부릅뜨고 보아야 한다. 가장 깊은 곳에 있던 사람들과 그들을 구하러 내려간 사람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에게 전해야 한다. 항구엔 따뜻한 옷과 밥을 챙겨놓고 그대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그대가 사라지는 만큼 까맣게 굳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돌이 되기 전에 당신의 눈물 같은 **뺨와 살 그대로 꼭 돌아오시라.** 하루라도 빨리 사랑하는 사람의 곁에 편히 잠들어 꿈에서라도 그 따뜻한 품 꼭 안아보시라.

그리고 기어이 말해야 한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잠수사가 들어와 그대의 손을 잡는 그 날까지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이 글은 은전 님이 지난 6월 '기다림의 버스'를 타고 뺨목항에 다녀와 쓴 글입니다. 10월 29일 황지현 양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실종자 9명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
- 박경석 유언장 -



어찌 보면 지금 유언장을 쓰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해병대를 제대하고 잘 놀다가, 1983년 토함산에서 행글라이딩 하다가 떨어져 척수 손상을 입고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구석에 5년간 처박혀 있을 때 모든 삶의 희망을 잃고 죽고 싶어 수십 번 유언장이라는 것을 쓴 경험이 있습니다. 장애 때문에 살아갈 희망도 용기도 없었던 그때 쓴 유언장 또는 낙서는 원망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조금이나마 기억해주었으면 하는 매달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냥 절망이었고 어둠이었습니다.

오늘(2014. 8. 29) 이 밤에 쓰는 유언장은 그때와 너무나 다른 유언장입니다. 나는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잘 살고 싶습니다.

잘 사는 삶은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정말 거지같은 세상에서 인간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꿈을 꾸며 투쟁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왜? 유언장이냐? 문득 그리고 갑자기 떠나는 동지들, 친구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죽음은 어떤 때는 누구에게나 너무나 준비 없이 다가오더군요. 그리고 적어도 내가 오늘 기억하며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중에 노망이 들어 번심할까봐)

사람은 죽습니다. 유한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움을 나는 충분히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내가 그 아름다움과 행복을 충분히 누리는 것은 여전

히, 그리고 아직도 장애인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투쟁하는 공간이 있기 때문이고, 함께하는 동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떠나는 이별의 마음으로 '감사함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그래도 장례식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랑 함께했던 사람은 양심이 있으면 잠깐이라도 들러서 내 영정 사진에 인사하고, 잠깐 눈물을 흘리면서 저의 명복을 빌겠지요. 그리고 조의금을 주시겠지요.

부탁합니다. 그 조의금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장례비용으로 실비용만 쓰고 나머지는 투쟁하는 곳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고 함께 투쟁했던 동지들이 있는 공간은 너무나 많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 투쟁하려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투쟁 비용으로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장을 하겠지요. 그 뺏가루는 그냥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리타분하고 관료적인 사람들 몰래, 그냥 한밤중에 (내가 삶과 투쟁을 알 때 모든 것이었던) 노들장애인야학이 공간 마련을 위해 천막을 쳤던 마로니에공원 그 즈음에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바쁜 가운데 1년에 한 번 와서 추모식 같은 것 하지 말고, 마로니에공원에서 잘 놀다가 그냥 여기에 내 뺏가루가 있다고 말해주면, 나도 그 사람을 기억하며 행복해하겠습니다.

이제 유언장은 그만 쓰고, 노들장애인야학 교실에서 나팔 불고 있는 준호를 꼬여서 술 한잔하겠습니다. 빨리 귀가하고 싶은데 (2시간 전에 장콜을 예약했지만) 장애인콜택시 콜센터에 목소리가 너무 익은 임수빈이라는 안내원(그 분은 언제나 밤에만 장콜 안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이 오늘이 금요일이라 콜이 폭주를 해서 아직도 32명이나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와... 옛날에는 그렇게 장애인이 많이 안 돌아다녔는데, 무슨 노무 장애인들이 밤늦게 돌아다니는 거야... 좀 일찍 가시라... 지금이 벌써 밤 11시가 되어가요.

만국의 장애인들이여, (비록 예산 없다고 지랄 대는 사람이 많아도) 집구석에 처박혀 있지 말고, 수용시설에서 처박혀 질질 찌지 말고, 단결하여 세상을 괴롭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고 싶다고'

노들장애인야학에서 장애인콜택시를 기다리며

2014.8.29. 밤 11시40분. 박경석

노들이면서 노들을 후원도 하는(?)

서기현 님

9월에 어느 잔잔한 가을바람이 불던 날. 하월곡동 어느 한 사무실에서 반짝거리는 머리로 동에 번쩍서에 번쩍 종횡무진 바쁘게 누비시며 사무실을 비추시는 어느 한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노들을 후원하고 계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서기현 소장님이 인터뷰의 주인공이십니다.



Q. 본인 소개 및 근황을 말씀해주세요

A. 저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에서 소장을 맡고 있는 서기현이구요. 근황은... 뭐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Q. 장판에 몸을 담게 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A. 2002년도부터니까 12년 정도 됐네요.

Q. 어떠한 경로로 장판에 들어오시게 되었나요?

A. 2002년도에 한국뇌성마비연합회라고 한뇌연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자조모임 형식으로 모임을 갖다가 한뇌연 활동가로 일하게 되면서 지금에 오게 됐죠.

Q. 노들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A. 제가 중학교를 검정고시로 들어갔고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로 들어가야 돼서 지금은 동송동에 위치해 있지만 노들야학이 아차산 정립회관에 있었을 때, 2005년도에 노들야학에 들어가서 한 3개월 정도 공부했었구요. 그 후 바로 고등학교 검정고시 패스하고 졸업을 하게 됐죠. 그 때부터 노들과의 인연이 시작됐죠.

Q. 센터판에는 어떻게 일하시게 되셨나요?

A. 그게 이제 장애인문화예술판의 좌동엽 대표님이 제가 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있을 때 저를 소장으로 추천해주셨어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그만두고 센터판에서 일을 하게 된 거죠.

Q. 그럼 센터판에 오시기 전에는 직책이 어떻게 되셨나요?

A. 소장직은 아니고 간사나 팀장 정도를 맡았고 소장직은 센터판이 처음입니다.

Q.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노들 안에서 센터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성북구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나 사업 같은 것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센터판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Q. 단순히 성북구에 계시는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이라는 말씀이신가요?

A. 성북구를 장애인들이 자립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과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10월
노들과
함께하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Q. 앞으로 노들과 센터판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A. 노들 단위가 사단법인 노들,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외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들야학, 현수막공장 노란들판, 장애인문화예술판 이렇게 있는데요. 이 모든 단위가 하나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노들이란 이름으로 하나로 묶여 있는데 각각이 맡은 역할, 예를 들어 지역적인 역할 혹은 분야적인 역할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이 사회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장애인들이 비 장애인들처럼 인간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하고 있고, 그런 역할을 좀 더 강화해서 우리가 '정말 장애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투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업을 펼칠 수도 있는 것이고, 서비스 제공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노들에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A. 10년 후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10년 후 20년 후 노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과연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과 가야 하는가?', '어떤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CMS후원인

강경완, 강귀화, 강남훈, 강문형, 강병완, 강복원, 강복현, 강소영, 강수해, 강영미, 강유선, 강정자, 강현욱, 강희관, 고경신, 고명희, 고승현, 고아라, 고은선, 고재현, 고제현, 공명렬, 공승룡, 광노근, 광성자, 구경민, 구수준, 구승기, 구현아, 권경숙, 권기원, 권미경, 권민희, 권병주, 권영주, 권용희, 권익재, 권진영, 권태국, 권혁운, 권혁은, 김가경, 김각균, 김건욱, 김건형, 김경숙, 김경혜, 김관희, 김광수, 김근식, 김기룡, 김기성, 김기우, 김기호, 김남수, 김대희, 김도경, 김도현, 김도훈, 김동은, 김동진, 김동환, 김두경, 김명학, 김문주, 김문호, 김미성, 김미영, 김민혁, 김민아, 김민영, 김민지, 김민호, 김민희, 김범식, 김병모, 김보연, 김봉석, 김부연, 김상희, 김선미, 김선아, 김선영, 김선욱, 김של민, 김성미, 김성현, 김세영, 김수경, 김수영, 김수현, 김숙이, 김승혜, 김아람, 김애경, 김연성, 김연수, 김연옥, 김연희, 김영미, 김영민, 김영선, 김영승, 김영환, 김영희, 김용남, 김용성, 김용욱, 김윤진, 김우석, 김원숙, 김유리, 김유미, 김윤자, 김윤정, 김윤진, 김은미, 김익현, 김재경, 김재양, 김재연, 김재인, 김재환, 김정구, 김정민, 김정옥, 김정하, 김중윤, 김중호, 김중환, 김 준, 김준호, 김준휘, 김지민, 김지숙, 김지순, 김지연, 김지영, 김지예, 김지은, 김지환, 김진규, 김진수, 김진영, 김진우, 김창배, 김창보, 김태승, 김태우, 김태인, 김푸른솔, 김학호, 김한민, 김현령, 김현식, 김현영, 김현정, 김현지, 김형배, 김혜미, 김혜옥, 김혜진, 김호식, 김홍희, 김희정, 김희찬, 김희현, 나선영, 나원진, 나해니, 남대호, 남두형, 남민영, 남지현, 남효진, 노미경, 노상경, 노현택, 노혜련, 동근숙, 류명옥, 류승화, 류정숙, 류정하, 마미주, 문건화, 문경희, 문성원, 문소리, 문지희, 문창배, 민혜숙, 박경석, 박경숙, 박경영, 박경준, 박경혜, 박경화, 박계선, 박누리, 박명숙, 박미경, 박민경, 박민영, 박보근, 박보라, 박상일, 박상호, 박서희, 박선우, 박선은, 박성희, 박세영, 박세진, 박세호, 박수진, 박승하, 박시백, 박신영, 박애경, 박연희, 박영민, 박영환, 박은국, 박은정, 박장근, 박장근, 박재국, 박정숙, 박정원, 박정희, 박종진, 박종철, 박종필, 박종현, 박주연, 박준호, 박지영, 박진숙, 박철우, 박초롱, 박태만, 박하순, 박현민, 박현정, 박현희, 박홍석, 박희수, 배경원, 배덕민, 배수자, 배승천, 배안나, 배윤주, 배진숙, 배치녀, 백수경, 백승혜, 백연희, 백재선, 백진희, 변하연, 서기현, 서남교, 서매순, 서명순, 서명아, 서미선, 서미진, 서민영, 서민희, 서봉경, 서은수, 서정록, 서주형, 서호필, 석지윤, 선혜란, 성정현, 성희옥, 손동각, 손성권, 손은경, 손주영, 손준희, 손희경, 송상훈, 송선화, 송영란, 송창국, 신복순, 신봉준, 신석호, 신수정, 신숙희, 신순영, 신안수, 신연실, 신영근, 신은희, 신임식, 신 진, 신현훈, 심귀환, 심미경, 심선진, 심은선, 심이영, 심인섭, 심정구, 안경모, 안남희, 안문필, 안민희, 안바라, 안병호, 안석호, 안선영, 안소진, 안인숙, 안정애, 안종녀, 안향미, 안희옥, 양민화, 양윤근, 양인순, 양현준, 어수진, 엄순영, 엄재균, 엄주철, 여준민, 오보람, 오원주, 오정자, 오정희, 오중환, 오지은, 오진아, 옥 샘, 우승명, 우시우, 원영진, 원재민, 유남숙, 유문수, 유보배, 유애리, 유영순, 유정윤, 유창재, 유희정, 윤기범, 윤길중, 윤동구, 윤명섭, 윤미선, 윤봉섭, 윤석규, 윤선기, 윤성근, 윤승용, 윤승원, 윤 영, 윤이용, 윤정미, 윤정민, 윤정은, 윤정임, 윤종술, 윤준서, 윤혜숙, 윤호진, 윤 희, 이강수, 이경덕, 이경민, 이경자, 이경훈, 이경희, 이광만, 이광석, 이광재, 이금희, 이기훈, 이동은, 이동진, 이라나, 이리나, 이문희, 이미리암, 이미영, 이미정, 이민규, 이범민, 이비할, 이석원, 이선진, 이선희, 이성호, 이수연, 이순웅, 이승민, 이승범, 이말찬, 이연옥, 이연주, 이영경, 이영수, 이용길, 이원진, 이유진, 이윤옥, 이윤정, 이은숙, 이은주, 이은우, 이장우, 이재규, 이재령, 이재승, 이정실, 이정은, 이제성, 이제현, 이종국, 이종실, 이주오, 이주옥, 이준범, 이지영, 이지은, 이지환, 이진섭, 이진실, 이진영, 이진주, 이진희, 이찬미, 이채린, 이철우, 이태근, 이한호, 이현명, 이현숙, 이현아, 이현진, 이호연, 이호중, 이효정, 이희영, 임광열, 임덕실, 임동근, 임원택, 임은영, 임은정, 임춘학, 임태중, 임혜숙, 장경주, 장근영, 장명희, 장미희, 장상순, 장선정, 장성아, 장옥란, 장정환, 장창완, 장혜미, 장효정, 전경래, 전권세, 전대진, 전미라, 전미영, 전민숙, 전상우, 전성자, 전 욱, 정경신, 정다운, 정대수, 정대훈, 정동식, 정민구, 정병순, 정상엽, 정상욱, 정선옥, 정송이, 정수연, 정영란, 정영석, 정영자, 정영호, 정용균, 정용일, 정용훈, 정우준, 정운영, 정유경, 정유진, 정은경, 정익화, 정재훈, 정종권, 정지영, 정진영, 정진이, 정태인, 정택용,



후원방법 안내

1 후원계좌 및 물품 안내

- **노들장애인아학**
국민은행 488401-01-202282
신한은행 110-025-510184
농협 029-12-200545
우리은행 470-07-035448
하나은행 757-810128-43007
외환은행 170-19-3045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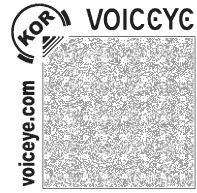
-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국민은행 031601-04-165177
- **장애인문화예술관**
국민은행 488401-01-202141
- **현수막공장 노란들판**
우리은행 1005-201-820597

2 정기후원

희망하는 일정금액을 기부해 주시는 방식입니다. CMS(노들로 연락) 방식과 직접 은행에서 자동이체 하시는 방법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3 일시후원

휴대폰,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운데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하고자 하는 금액을 일시적으로 입금하는 방식입니다.(www.nodeul.or.kr 홈페이지 참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후원인의 고마운 나눔이 있기에 노들은 살아갑니다.



정현강, 정현경, 정현숙, 정희덕, 조경애, 조미정, 조사랑, 조성진, 조수안, 조승근, 조아라, 조윤실, 조윤정, 조은별, 조은주, 조은진, 조응현, 조자영, 조정화, 조혁진, 조현경, 조현수, 조혜민, 좌동엽, 주기중, 주상연, 주식회사 머스트투자자문, 주영은, 주용춘, 주혜원, 지덕근, 지세진, 지암메디테크, 지혜름, 진영욱, 진영인, 차무영, 차순정, 채이배, 전성호, 천종민, 최경일, 최귀선, 최홍호, 최미란, 최민경, 최병진, 최병희, 최보경, 최석문, 최선아, 최승우, 최영식, 최영은, 최우영, 최윤경, 최윤선, 최은아, 최은정, 최익, 최재민, 최정민, 최정원, 최정은, 최찬일, 최하정, 최한별, 최혜영, 최혜원, 최호연, 표미라, 표희철, 하경남, 하금철, 하윤, 하정자, 한남희, 한명숙, 한명희, 한상배, 한선희, 한성안, 한송희, 한양재, 한주영, 한혜선, 한혜원, 한희자, 허보영, 허신행, 허영신, 허완수, 허정일, 허진태, 허창, 허효재, 현영철, 현정민, 형장우, 홍도순, 홍성미, 홍성로, 홍송대, 홍순희, 홍영희, 홍은전, 홍은진, 홍주영, 홍지연, 홍진표, 홍철기, 황성윤, 황정희, 황진미, 황해진, 황혜전, 황희준

자동이체 후원인

강수혜, 고명선, 구자숙, 권대상, 김경숙, 김명화, 김미선, 김선심, 김용철, 김정지현, 김지연, 김진순, 남완승, 류동훈, 박경선, 박윤기, 박현규, 백연희, 서금석, 손환목, 송영자(향린), 신동길, 신디, 아름다운동행, 안성희, 양명희, 오선실, 유승엽, 윤종배, 윤지형, 이두혁, 이마트 단체지원, 이미선, 이승섭, 이한진, 이형욱(부개성누가의원), 인현숙, 장경사, 정옥순, 조계중, (주)엠알엠플로벌, (주)티에이치엘, 차명수, 철도노동조합, 최상희, 허병권, 황미향, 희망열차(김낙형)

<노들로 들어온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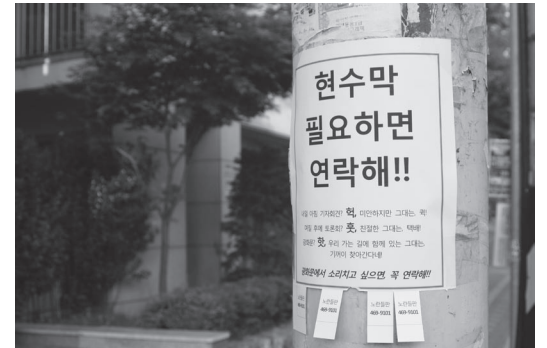
- 법무법인 지명 모니터 11대
- 서장원 쌀 20kg
- 최재훈 마른미역 560인분

*노들20주년 후원물품 판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합니다』(홍은전 지음, 까치수업 펴냄, 10,000원)
- 『나는 지금이 더 행복하다』(박경석 지음, 책으로여는세상 펴냄, 10,000원)
- 잡곡(10,000원) / 20주년 “노들” 티셔츠(15,000원)
- 매실청(900ml, 20,000원) / 노들 20주년 사진집(20,000원)
- 양말(3,000원) / 신문지 재생연필(10자루, 3,000원)



팟캐스트 방송 ‘듣거나 말거나 노들바람’이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로 이름을 바꿔 새로운 내용으로 꾸려갑니다. 노들 사람들의 이야기에서부터 장애인운동의 생생한 이야기들로 채워집니다.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기대해주세요. ^^



내일 아침 기자회견! 헉, 미안하지만 그대는 쿵!
며칠 후에 토론회? 훗, 친절하 그대는 택배!
광화문? 핫, 우리 가는 길에 함께 있는 그대는,
광화문에서 소리치고 싶으면 꼭 연락해!!!

꿈꾸는 현수막 노란들판
주문·문의 02-469-9101

장애인활동보조 이용자 및 활동보조인을 모집합니다

활동보조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유급보조인의 다양한 보조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사회구성원으로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이용자(장애인 이용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2급 장애인
만 6세~65세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활동보조인 자격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
활동보조 기본교육 이수 필요

노들이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받고 싶거나 궁금한 게 있는 분은 연락주세요.

전화 : 02-766-9120 / 팩스 : 02-6937-1701 / 이메일 nodeul@gmail.com

그를 만나면서 나는 장애를 다시금 곱씹었다. “동시대에 살고 있지만 장애인
인은 비동시대적”이라는 말은, “비장애인에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장
애인들에겐 매우 특별한 사건”이라는 말은 허튼 구호가 아니었다.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된 우리 사회엔 장애인들의 일상이 자리할 공간이 없었다. 그
들의 삶이 온전히 숨 쉴 자리가 없었다. 걷고 싶다, 그와 나란히. 내가 중심
이 된 세상이 아닌 그와 내가 오롯이 중심이 된 세상에서. 걷고 또 걷고 싶
다, 그의 손을 잡고. 애달프게 바라보는 관계가 아닌 친구가 되어.

『나를 위한다고 말하지마』에서
해정의 한꽃님 인터뷰, 삶창, 2013

